# 차 례

## 1. 사회주의도덕



## 2. 사회주의법

# 1. 사회주의도덕

## 제1과.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조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에 대한 위대한 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콩우유에도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특별비행기까지 띄우시여 현대적인 콩우유생산설비와 수십대의 콩우유차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콩우유를 생산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날이 밝던 어느해 7월 8일 이른아침이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

자들이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질좋은 콩우유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있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사랑의 왕차, 콩우유차들은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멈춤없이 달릴수 있었으며 오늘은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크고작은 콩우유공장들에서 맛있고 질좋은 콩우유들이 더 많이 생산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사랑은 콤퓨터수재교육에도 어려있습니다.

새 세기의 첫 양력설을 기쁨속에 보낸 1월 어느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콤퓨터수재교육을 강화하여 콤퓨터수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콤퓨터교육은 어려서부터 하여야 은을 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중학교와 금성학원에 최신형콤퓨터, 최신교육설비와 통학뻐스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우리들이 마음껏 배우고 즐기는 소년궁전들과 야영소들 그리고 통학렬차와 통학뻐스, 통학배들에도 깃들어있습니다.

어느해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건설총계획도와 건설전망사판을 보아주시다가 비록 산골에 있는 군소재지라 하더라도 온 세상에 보란듯이 학생소년궁전을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고 혁명전적지를 찾아오는 학생소년들을 위해 삼지연못가의 수림속에 소년단각도 번듯하게 지어주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돈과 자재를 아꼈다가 어디에 쓰겠는가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서 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후대들을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위대한 원수님의 사랑에 떠받들리여 백두산기슭에 새 세대들의 행복의 집, 왕들이 사는 궁전이 일떠서고 온 나라 경치좋은 곳에 학생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이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곳곳에 사랑의 통학렬차, 통학뻐스들이 달리고 멀리 바다가 등대섬마을로는 통학배가 달리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가슴속에 기쁨과 행복만을 꽉 채워주고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4월의 봄명절날마저도 전선시찰의 길에서 우리 학생들이 야영가는 모습을 기쁘신 마음으로 보시며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라고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십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삼가 올리는 편지도 꼭꼭 보아주시고 어서 커서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축복해주십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속에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온 나라 그 어디에 가나 그칠줄 모르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더 밝고 창창한 앞날을 위해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길, 선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끝없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들로 억세게 자라나야 합니다.

과외읽기

## 위대한 사랑은 외진 섬에도

옹진군의 작은 섬인 룡호도에서 사곡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태운 《통학-827》호 배가 매일 륙지와 섬사이를 오가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섬마을아이들이 날씨가 사나운 때면 학교에 가기 힘들어한다는것을 료해하시고 룡호도의 학생들을 위해 통학배를 보내주도록 하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현대적인 통학배를 받아안은 섬마을사람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고마운 은덕에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배를 보내주도록 해주신 날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통학—827》호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통학배는 오늘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돌려주시는 위대한 원수님의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며 조국의 바다를 달리고있습니다.

# 제2과. 기특한 소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되자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소학교시절에 벌써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아안은 금성이는 위대한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시여 온 나라가 다 아는 소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인 금성이는 위대한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풀어드리고 기쁨을 드렸습니다.

어느해 6월이였습니다.

룡악산의 비탈진 산경사면을 따라 무성한 숲을 헤쳐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산속을 살피는 그 소년은 룡악산소년단야영소에 표창야영을 온 금성이였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성이가 애타게 찾고있는 곰취라는 산나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룡악산에는 취가 없단 말인가.)

금성이의 눈앞에는 이곳으로 떠나올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교—우리 초소》련계를 맺고있는 인민군부대의 지휘관아저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휘관아저씨는 그날 금성이에게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 룡악산에서 인민군지휘관들을 만나주셨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그전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왔을 때에는 여기에 취가 많아서 취를 뜯어 쌈을 싸먹었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종자마저 없어졌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였습니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난 금성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대원수님생각이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그때의 일을 오늘도 못 잊어하실가. 그 사연깊은 취가 종자마저 없으니 아버지원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였을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께서 아시는 취가 룡악산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내가 그 곰취를 찾아낼수는 없을가?)

그때부터 금성이는 룡악산의 곰취를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룡악산소년단야영소에 오자마자 곰취를 찾는 일에 달라붙었던것입니다.

그날 금성이는 안타까운 마음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어제 밤 꿈에 곰취를 보았다. 그런데 낮에는 왜 보이지 않을가.

지금 나에게 제일 큰 보물은 곰취이다. 보물찾기에서는 1등을 했는데 왜 취를 못 찾을가. 아무래도 내 정성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취야, 취야.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주렴.》

야영이 끝나도록 곰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으나 금성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리나 되는 먼길을 1년동안이나 오가며 천마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성이에게는 위대한 원수님께 기쁨드릴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꽉 차있었습니다.

마침내 금성이는 천마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곰취를 찾아냈습니다.

《곰취를 찾았어요, 곰취를!》

곰취를 하늘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는 금성이의 두볼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성이는 정성다해 캔 곰취뿌리를 안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곧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영광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룡악산의 뜻깊은 곳에 소중히 싸안고 온 318뿌리의 곰취를 정성담아 심었습니다.

취발을 알뜰히 꾸리고난 금성이는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계실 위대한 원수님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웨쳤습니다.

(아버지원수님, 기뻐하십시오.

아버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룡악산에 취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룡악산에 온통 곰취가 뒤덮이게 하겠습니다.)

금성이는 자기의 깨끗한 마음과 결의를 담아 위대한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금성학생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감사하다고, 정말 기특하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오늘 룡악산에 뒤덮인 곰취는 금성이의 기특한 마음을 소리높이 자랑하며 나날이 무성해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내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여야 합니다.

# 제3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다 수업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수업규률을 잘 지키는것은 배우는 학생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초보적인 례의도덕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시면 일제히 일어서서 바른 자세로 례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답례를 하고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모두 제자리에 앉아 앉음새를 바로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학생은 일어서서 《예.》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한 다음 제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때 반쯤 일어서거나 앉아서 대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거나 앉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의자를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은 수업을 받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몸가짐을 바로하고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분위기를 흐려놓고 다른 동무들의 학습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더우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졸거나 삐뚤서하게 앉는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예.》 하고 똑바로 서서 대답하여야 합니다.

지명을 받고도 제때에 일어서지 않거나 몸을 비틀면서 엉거주춤하며 일어서는것은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척척 대답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잘 모르겠습니다.》,《다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똑똑히 대답하는것이 옳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입안소리로 알아들을수 없게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이 대답할 때 귀띔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어서서 책을 읽을 때에는 두손으로 받쳐들고 모든 학생들이 들을수 있는 소리로 똑똑하게 읽어야 합니다.

틀리게 읽거나 발음을 잘못한다고 하여 웃어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용무가 있으면 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교실에서 조용히 나가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신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직 나가시기도 전에 떠들썩하거나 먼저 나가려고 덤벼치는것은 례절이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례의규범을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 제4과. 옷차림과 몸단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외모가 단정하여야 합니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문화수준정도가 평가됩니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상쾌하고 친근한감을 주며 인품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옷차림이 너절하고 몸단장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뿐아니라 거리의 화려한 분위기도 흐려놓게 됩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선 학교에 갈 때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옷차림새는 그 학생의 인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교복에 소년단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소년단휘장을 정확히 달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옷을 늘 깨끗이 빨아서 산뜻하게 다려입어야 하며 집에 와서는 옷걸개에 곱게 걸어놓아 구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달개는 언제나 깨끗하게 새것으로 달아 입어야 하며 바지도 주름발이 서있도록 늘 관심하여야 합니다.

교복의 목단추는 꼭 채우고 샤쯔는 바지안에 넣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고다녀야 합니다.

양말과 신발은 교복차림에 어울리게 언제나 깨끗하게 신어야 합니다.

신발차림은 특히 학생들의 몸단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신발이 어지러우면 볼품이 없습니다.

깨끗한 신발차림은 머리와 옷단장을 더욱 돋구어주며 인품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될수록 발에 맞는것으로 깨끗이 손질하여 신어야 합니다.

운동화의 끈도 단정히 매고 흰 고무부분을 매일 하얗게 닦아신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발을 닦아신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발뒤축을 꺾어신지 말고 바로 신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머리단장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옷차림도 머리단장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울릴수 없습니다.

머리단장은 몸단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머리단장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알수 있기때문입니다.

머리단장은 그만큼 매 사람의 품격과 중요하게 관련되는것입니다.

남학생들은 기백이 있어보이게 짧은 머리, 송이머리를 단정히 하고 다녀야 합니다.

녀학생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풍습인 쌍태머리단장을 살려나가는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의 머리형태를 따라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머리모양을 흉내내는것은 학생의 풍모에 어울리지 않으며 학습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과외생활에 참가할 때에도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하여야 합니다.

과외체육을 할 때에는 운동복에 체육모자를 쓰고 운동하는데 편리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채로 과외체육에 참가하거나 녀학생들이 뒤축높은 신을 신고 운동하는것은 불편할뿐아니라 몸단련에 지장을 줍니다.

나무심기, 꼬마계획 등 좋은일하기운동을 하거나 작업에 참가할 때에는 간편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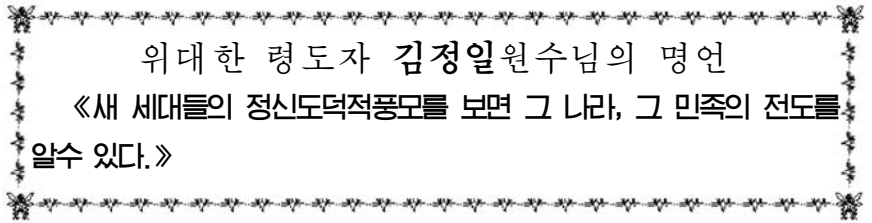
일한다고 하여 어지러운 옷을 되는대로 입는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문화성이 없는 표현입니다.

학습반에 가거나 마을에서 놀 때에도 늘 깨끗한 차림새를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 민족의 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주체조선의 새 세대답게 언제나 옷차림과 몸단장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새 세대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다.》**

과외읽기

## 몸소 군정학습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6(1937)년 겨울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지도하시던 나날 오중흡선생님이 책임진 4중대를 모범중대로 꾸리시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군대에서 질서와 규률은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규률이 있고 절도있는 생활에서만 대오의 전투력이 강화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중대에 내려가시여 병실, 취사장, 세면장, 방아간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대원들의 장구류와 옷차림을 검열하신 후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부대내에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며 항상 긴장된 태세에서 모든 생활을 알뜰히 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안에는 꿰진 신을 신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고다니는 대원들이 없었으며 한건의 사건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 제5과. 꼭같은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충성과 효성의 마음은 언제나 순결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영수는 사적지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늘 마음을 씁니다.

영수가 사는 마을 가까이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위대한 원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학습터가 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책읽기의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마을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우리들이 공부를 잘하여야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고 훌륭한 일군이 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공부를 잘하면 미국놈들은 벌벌 떨면서 쫓겨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영수네 분단동무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뜻깊은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정성다해 알뜰히 거두고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새벽이였습니다.

영수는 잠결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나가면서 하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원 저런, 밤사이에 세찬 빗바람이 지나갔구나!》

영수는 소스라쳐 깨여나 집을 나섰습니다.

(사적지에 심은 목란꽃나무들이 넘어지지 않았을가?)

영수는 가슴을 조이며 혁명사적지로 내달렸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귀중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사적지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소년단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혁명사적지에 이른 영수는 큰 바위밑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어린시절에 이 바위에 앉으시여 글을 읽으시던 위대한 원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것만 같았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을 우러르는 영수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영수는 바위주변의 목란꽃나무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몇그루가 빗바람에 넘어져 뿌리가 드러나있었습니다.

영수는 정성스레 뿌리를 묻어준 다음 버팀대를 세우고 끈으로 매주며 말했습니다.

《꽃나무야, 어서 자라 고운 꽃을 활짝 피워주렴아. 위대한 원수님의 발자취가 더욱 빛나게…》

이때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경호가 글자들이 새겨진 표식비를 열심히 닦고있었습니다.

《경호동무!》

영수는 달려가며 소리쳐불렀습니다.

《영수동무, 일찍 나왔댔구나.》

둘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동무, 이 잣나무를 좀 봐. 표식비에도 새겨져있지만 전쟁때 위대한 원수님께서 어린 동생과 함께 심으신 잣나무가 아니니. 이젠 이렇게 키높이 자랐구나.》

경호는 하늘높이 솟은 잣나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 나무가 이렇게 커가는데 위대한 원수님을 받드는 나의 마음은 뜨겁지 못했어. 그래서 이 글발을 자주 닦고싶어지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경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습니다.

경호가 정성껏 닦아놓은 표식비의 글발은 아침해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때 아래쪽에서 웅성웅성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단동무들이 하얀 차돌을 주으면서 하는 말소리였습니다.

《넌 지금껏 책을 얼마나 읽었니?》

《1 500페지.》

《그러다간 책읽기에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겠다.》

《걱정말어. 5 000페지는 기어이 읽을수 있어.》

하얀 차돌을 줏는 동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있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뜨거운 마음은 꼭 같구나!)

분단동무들을 바라보는 영수의 마음도 기쁨으로 설레였습니다.

분단동무들은 하얀 차돌을 알알이 닦아 표식비앞에 깔기도 하고 힘을 합쳐 목란꽃나무마다에 버팀대를 더 든든히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분단동무들의 그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꽃나무들은 아무리 세찬 빗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이들처럼 한마음한뜻이 되여 혁명사적지들을 더 알뜰히 꾸리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 제6과. 앉음새와 몸가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며 례절을 잘 지키는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앉음새와 몸가짐을 바로하는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례절입니다.

학생들은 장소와 조건에 맞게 앉음새를 바로해야 합니다.

앉음새는 앉는 모양, 앉아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례절바른 앉음새는 한마디로 말하여 자리를 바로 정하고 인사성과 문화성있게 앉는 모양입니다.

우선 의자에 앉는 앉음새를 바로하여야 합니다.

교실의자에 앉을 때에는 엉치를 의자에 붙이고 안전하게 앉으며 두손은 무릎우에 올려놓거나 책상우에 가볍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의자의 한끝에 몸을 붙이고 걸써 앉거나 의자등받이에 한쪽 팔을 걸고 옆으로 앉는 자세 같은것은 다 바른 앉음새라고 볼수 없습니다.

팔걸이의자를 리용할 때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앞에서 개인팔걸이의자를 리용할 때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두팔을 팔걸이에 거는것보다 무릎우에 올려놓는것이 더 정중한 자세입니다.

팔걸이를 공동으로 리용하게 되여있는 극장, 영화관의 관람석을 리용할 때에 량쪽 팔걸이를 혼자서 다 차지하는것은 실례로 됩니다.

팔걸이가 없는 역기다림칸의자에 누워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받이가 없는 실험실의자에는 조심성있게 앉아 의자를 넘어뜨리거나 파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바닥에서의 앉음새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남학생들은 올방자자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편안하고 보기 좋은 앉음새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방바닥에 앉을 때에 두다리를 쭉 펴거나 거의 눕다싶이 앉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것은 다 비문화적이고 바르지 못한 앉음새입니다.

학생들은 여러가지 경우에 몸가짐을 바로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을 맞이할 때 몸가짐을 바로하고 인사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설 때 완전히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해야하며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지 않거나 하던 일을 마저 하고 뒤늦게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웃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웃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정중한 자세로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웃사람과 이야기할 때 팔장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현상,

다리를 벌리고 서거나 하품을 하는 현상, 웃사람의 책상이나 의자를 손으로 짚고서서 이야기하는 현상 등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몸자세를 바로하고 걸어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에는 머리를 바로 들고 앞을 보며 어깨와 가슴을 펴고 몸을 곧추 세워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신을 꺾어신거나 가방을 휘두르면서 지나치게 팔을 휘젓지 말아야 하며 길가에서 가래침을 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앉음새와 몸가짐에 깊은 주의를 돌려 도덕생활에서 언제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 제7과. 영근이가 찾은 교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든가,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깔보며 남을 헐뜯어서는 집단생활을 잘할수 없습니다.》**

어느날 《소년신문》에는 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수여받은 영근이네 분단에 대한 소개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분단의 자랑》이라는 제목밑에 사진과 함께 소개된 글이였습니다.

《소년신문》을 펼쳐든 동무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습니다.

영근이는 기뻐하는 동무들을 보며 조직과 집단으로부터 멀어질번 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

사실 영근이에게는 동무들을 깔보고 저만 잘난체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단모임에서 여러번 비판을 받았지만 좀처럼 고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달리기경기를 조직했을 때였습니다.

영근이네 분단에서는 분단모임을 열고 이번 집단달리기경기에서 꼭 1등을 하여 집단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과외체육학교에서 륙상훈련을 받고있던 영근이에게는 자기보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한 동무들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흥, 너희들이 1등을 해? 어디 실컷 해봐라.…)

영근이는 동무들을 깔보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이 훈련에 참가하자고 몇번이나 찾으러 왔으나 영근이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동무들까지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리는것을 보자 영근이의 눈은 둥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머리를 숙이고 훈련에 끼여들고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오의 맨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기운차게 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본 영근이였기때문입니다.

경기날자를 눈앞에 둔 때였습니다.

영근이는 과외체육학교에서 훈련하다가 그만 발목을 상하게 되였습니다.

하루종일 텅빈 집에서 하는일없이 있자니 몹시 적적했습니다.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는 학교쪽을 보느라니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조국통일! 조국통일!》

발맞추며 달려가는 동무들의 힘찬 웨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막 달려가서 동무들과 함께 달리고싶었습니다.

(나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동무들을 깔본 내가 이제 무슨 렴치루 …)

영근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있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흠칫 놀라서 내다보니 동무들이 한마당 가득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영근동무, 좀 낫니?》

《이제 경기날자가 이틀밖에 없다.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동무들은 얼음주머니를 발목에 대주기도 하고 시원한 과일을 깎아 손에 쥐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발목이 채 낫지 않으면 우린 널 업고라도 달릴테야.》

진정어린 동무들의 말에 영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고마와. 날 용서해.》

영근이는 동무들이 자기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분단위원회까지 몇번씩 가졌다는것도 후에야 알게 되였습니다.

마침내 경기날이 왔습니다.

영근이가 대렬속에서 신들메를 든든히 조이고있을 때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이 다가오더니 영근이의 손목을 잡고 대렬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기수는 영근동무가 해야 한다고 동무들이 모두 추천했어. 자, 받아.》

그러면서 영근이에게 분단기발을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동무들을 깔보며 집단을 무시했던 내가 기수가 되다니 그럴수 없어.)

영근이가 주춤거리는데 동무들은 모두 영근이의 등을 떠밀어 내세워주었습니다.

《동무야 우리 분단적으로 달리기를 제일 잘하지 않니?》

《그럼, 응당 영근동무가 기수가 되여야 해.》

동무들의 진정어린 말에 영근이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집단달리기가 시작되였습니다.

영근이를 앞세우고 분단기발을 날리며 동무들은 발맞춰 씩씩하게 달렸습니다.

《조국통일! 조국통일!》

마침내 영근이네 분단이 1등을 하였습니다.

마음합쳐 힘껏 달려온 영근이와 분단동무들의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그후 영근이네 분단은 도에서 진행한 집단달리기경기에서도 단연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도 잘하고 예술소조활동도 힘있게 벌려 군적으로 제일먼저 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

《동무들! 우리모두 <영예의 붉은기학급>의 자랑과 영예를 안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합하여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나가자요.》

기쁨이 한껏 어린 동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였습니다.

동무들을 둘러보는 영근이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속삭임이 울리고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급이 제일이야!)

영근이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존중하고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것을 다짐했습니다.

## 제8과. 웃사람에 대한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늙은이나 웃사람앞에서는 인사말이나 몸가짐도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웃사람은 혁명을 오래동안 해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사회주의건설자들 그리고 인민군대아저씨들과 같은분들입니다.

우리의 웃사람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바라신대로 위대한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며 튼튼히 지켜나가고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존경하며 례절바르게 대하는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웃사람을 례절바르게 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례의를 잘 표시하는것입니다.

웃사람에게는 언제나 먼저 인사하여야 합니다.

아는 사이의 웃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정실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반장아저씨, 일하러 가십니까?》 이런식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머리숙여 인사하거나 소년단경례를 붙여 례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에게는 언제나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동무들사이에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이야기되는 웃사람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웃사람들에게 건방지고 거친 말투로 묻거나 웃사람들의 물음에 그런투로 대답하여서는 안됩니다.

웃사람을 대할 때 몸가짐을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에게 말할 때는 바른자세를 하고 성의있게 말하여야 하며 웃사람이 말할 때 귀담아들어야 례절바른 행동으로 됩니다.

웃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거나 말참견을 하는것은 매우 버릇없고 례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웃사람에 대한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웃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불편이 없도록 잘 돌보아주는것입니다.

가을철 등산행군때였습니다.

휴식구령이 내리자 소년단반별로 쉴 자리를 잡았습니다.

춘호네 반은 샘터에서 멀지 않은 큰 소나무밑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선생님은 휴식차비를 하는 동무들을 돌아보고계셨습니다.

(선생님은 행군할 때 뒤떨어지는 동무들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춘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동무들에게 말했습니다.

《배낭을 벗어놓고있다가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함께 쉬자. 여기에 선생님자리를 내놓는게 어때?》

언제나 례절바른 춘호의 말에 동무들은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춘호는 선생님에게로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동무들과 같이 휴식하십시다. 동무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춘호는 선생님을 모시고 동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춘호는 집안에서도 웃사람들을 먼저 돌봐드릴줄 압니다.

춘호는 할아버지를 추울 때는 제일 따끈한 자리에 모시고 더울 때는 부채를 가져다드리기도 합니다.

언제인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어두운 방에서 안경도 없이 신문을 보고계셨습니다.

춘호는 얼른 전등을 켜고 안경을 찾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안경을 끼고 신문을 보시는 할아버지가 그래도 불편하신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읽어주렴.》

할아버지는 거침없이 신문을 줄줄 읽어내려가는 손자가 대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녀석두 원, 기특하기두 하지!》

소년단원들은 춘호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웃사람들을 존경하는 례절바른 학생이 되여야 합니다.

## 제9과. 마음속의 거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리익에 맞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긍지감을 가지게 되며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였을 때에는 비록 남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식수절을 맞으며 나무심기를 진행하던 날이였습니다. 순옥이네 반은 금희네 반과 승벽내기로 일손을 다그쳐 이제 몇그루만 마저 심으면 1등은 문제없게 되였습니다.

순옥이는 학급동무들에게 더 서두르라고 이르며 마지막구뎅이를 부지런히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뽐만 파면 되겠다 하는 때에 커다란 바위가 삽날에 부딪쳤습니다.

(어떻게 할가?)

머뭇거리고 섰는데 저쪽에서 영란이가《순옥아, 다 팠니?》하고 소리쳤습니다.

《응.》

순옥이는 얼결에 이렇게 대답해놓고나서 놀란듯 흠칫하며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내가 왜 이럴가? 혼자만 눈감으면 되겠는데…)

다시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아! 왜 나무를 심지 않고 서있기만 하니? 금희네가 다 따라왔는데.》

영란이의 독촉이였습니다.

순옥이는 얼른 부식토 한삽을 떠서 바위돌을 덮어버린 다음 나무모를 세우고 흙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이라구 속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영란이가 또 재촉했습니다.

《너 어쩌자고 그러니?》

순옥이는 눈을 꼭 감고 흙을 마저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순옥이네 반은 학교적으로 맨먼저 나무심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총화모임에서 순옥이는 머리를 들고 동무들과 선생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총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오늘 나무심기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마무리를 잘하였습니다. 특히…》

순옥이는 자기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뜨거워 아무데건 막 숨고 싶었습니다.

학급동무들이 1등을 했다고 좋아할수록 순옥이는 더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동무들이 내가 한 행동을 안다면 뭐라고 할가? 선생님은 …)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나무심기의 진짜 총화는 앞으로 동무들이 심은 나무가 할것입니다.

흙과 함께 량심을 묻어준 나무는 푸르싱싱하게 자랄것이며 그렇지 못한 나무는 자기를 심은 동무들을 원망할것입니다.…》

순옥이는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온몸이 뜨거워나 그냥 서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해 걸으면서도 묻어버린 바위생각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순옥이는 저도모르게 웃고 떠들며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있는 동무들로부터 한발두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옥학생이 아니예요?》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곁에 다가오시였습니다.

《선생님!》

울적한 목소리로 찾는 순옥이에게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은 다우쳐물었습니다.

《아니, 순옥학생. 무슨 일이예요?》

《선생님, 저는 땅속에 량심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예요?》

《전 1등을 할 생각만 하면서…》

순옥이는 소년단지도원선생님에게 모든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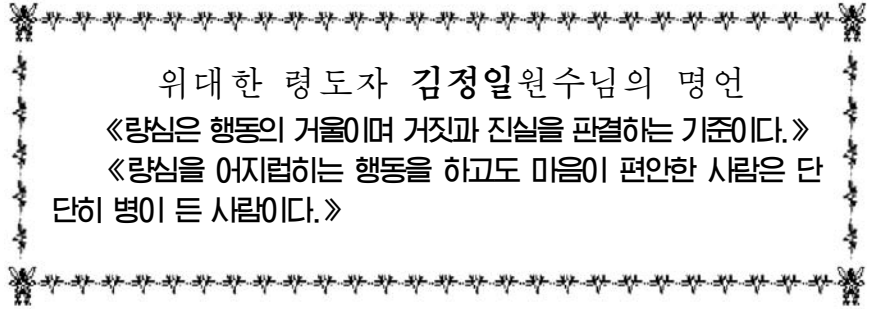
《잘 생각했어요. 함께 가자요.》

순옥이의 마음을 밝혀주려는듯 어둠을 밀어내며 둥근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무를 심고나서 내물에 손을 씻으며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이, 사람이 량심을 속이고는 못살겠지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량심을 떼놓으면 남을것이 없다고들 하지요.

사람은 항상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자기의 행동을 량심에 비추어보며 살아야 해요.》

내물에 비쳐진 둥근달을 바라보며 순옥이는 량심이 가리키는 대로만 행동하리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량심은 행동의 거울이며 거짓과 진실을 판결하는 기준이다.》**

**《량심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단단히 병이 든 사람이다.》**

**과외읽기**

## 영웅의 량심

강동군 산림경영소에는 조국의 푸른 숲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는 산림감독원으로서 오늘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되였습니다.

(이 땅에 태여나 나무 한그루 심은것도 없다면 그 생에 무엇이 남겠는가. 무성한 숲은 곧 우리의 량심이다.)

영웅은 이런 생각을 안고 근 20여년세월 수많은 목재림을 조성해놓았습니다.

영웅은 오래전에 심한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험한 산발로 부식토를 져올리고 수천리 먼곳을 배낭을 지고 오가며 나무모를 구해다 한포기 한포기 정성다해 가꾸어왔습니다.

누가 보건말건 심심산속에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 한생을 바쳐가는 영웅의 량심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참다운 인간의 가장 깨끗한 량심입니다.

# 제10과. 팔려가는 아이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의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 나라들에 팔리워갔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에 불량배들이 둥지를 틀고있기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불행이 생기고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남조선괴뢰놈들은 몇푼의 돈을 벌려고 의지할데없어 거리를 헤매고있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꾀여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팔아먹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어느 한 도시에 사는 윤희와 윤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고아들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색안경을 낀 웬 사나이가 나타나 손에 사탕을 쥐여주면서 자기와 같이 가면 먹을것도 많이 주고 옷도 곱게 해입혀준다고 구슬렸습니다.

윤희와 윤수는 그 사나이를 따라 으슥한 골목에 있는 어느 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남조선의 불량배들이 어린 아이들을 비밀리에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무서운 소굴의 하나였습니다.

벌써 윤희와 윤수또래의 아이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지어 포대기에 싸여 제주먹을 정신없이 빨고있는 젖먹이애기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날이 왔습니다. 윤희와 윤수는 짐짝처럼 배에 실려 낯설고 산설은 어느 한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윤희와 윤수는 다른 나라의 돈많은 자본가놈들에게 팔리웠습니다.

한사람에게 팔리우면 오누이가 같이 있겠는데 윤희와 윤수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팔리웠습니다.

오누이는 헤여지지 않으려고 꼭 부둥켜안았습니다.

노랑대가리 계집년들이 파란 눈알을 무섭게 굴리며 오누이를 갈라놓으려고 제각기 기승을 부렸습니다.

《싫어요. 난 누나와 같이 있을래!》

《제발 우리 윤수와 함께 있게 해줘요. 우린 한형제예요.》

윤희와 윤수는 발을 동동 굴렀으나 주인년들은 인정사정없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서로 끌려가며 누나는 동생을 찾고 동생은 누나를 찾았습니다.

《윤수야!…》

《누나!…》

목메여 부르고 또 불렀으나 누나와 동생은 끝내 헤여지고말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가슴아픈 일이였습니다.

팔려간 윤희와 윤수는 각기 그 나라에서 어린 노예가 되고말았습니다.

윤희는 주인집아이보개로 시달렸고 윤수는 심부름군으로 들볶이였습니다.

윤수는 매일같이 누나가 보고싶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윤희도 동생생각이 자꾸 나서 눈앞이 흐려지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인년들은 알지 못할 말로 고함을 지르며 두들겨패는것이였습니다.

하루는 주인년이 무엇이라고 지껄이는데 윤수는 그 말을 미처 알아듣지 못해 그만 심부름을 얼른 할수 없었습니다.

주인년은 성이 독같이 나서 윤수를 발로 차고 마구 짓밟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쓰러진 불쌍한 윤수는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누나를 찾고 또 찾다가 끝내 숨지고말았습니다.

한편 윤희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의 이 기막힌 사연도 알지 못한채 또 다른 주인에게 팔리워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윤희와 윤수만이 당하는 불행이겠습니까.

팔려간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 불쌍한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인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쓰러져 숨지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놈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보살펴줄대신 돈벌이수단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이놈들은 저들만이 잘 살려고 어린이들을 팔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아이수출왕국으로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절반땅을 팔아먹다 못해 제 민족의 아이들까지 팔아먹는 남조선괴뢰놈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천백배로 복수하여야 합니다.

## 제11과. 생활을 절도있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업과 생활을 절도있게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여러가지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먼저 개인생활과 집체생활,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생활로 갈라집니다.

또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학습과 로동생활, 군대생활, 조직생활 그리고 휴식할 때의 문화정서생활 등으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로 하루생활과 주, 월, 년간생활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합쳐져 일생을 이룹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가지 생활을 합니다.

학생들의 하루생활만 보아도 학과학습과 과외활동, 소년단생활, 놀이 같은 여러가지 생활이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떤 생활에서나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을 절도있게 한다는것은 무엇이든지 정해진대로 모가 나게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생활을 절도있게 하는 학생은 숙제를 해도 정신을 집중하여 제때에 하며 등교준비까지 해놓고야 잠을 잡니다.

그리고 책꽂이나 방안도 늘 가쯘히 정돈하고 알뜰히 거두며 길을 가도 오른쪽으로 씩씩하고 곧바르게 걷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가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활을 절도있게 하였습니다.

옷은 낡고 가시덤불에 자꾸 찢겨도 제때에 손질하여 입으며 물을 거울삼아 단정한 옷차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일제놈들을 쳐물리치고 잠간 쉴참에는 다시 싸울 준비부터 해놓고 즐겁게 휴식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절도있는 생활은 하루밤 묵어간 숙영지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줄을 맞추어있는 수십개의 천막자리와 우등불자리, 취사장과 우물, 세면장 그리고 다님길들은 어느 혁명전적지에 가보아도 한결같습니다.

그러기에 일제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우등불자리만 보고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을 절도있게 하여야 더 많이 일할수 있습니다.

생활을 절도있게 하는 사람은 할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주인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손이 가지 않게 해놓으며 다른 일을 잡으면 그것도 또 그렇게 합니다.

이리하여 헛시간을 보내지 않고 더 많이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집단생활, 조직생활에서는 절도가 있어야 규률과 질서가 째이고 모든 일이 다 잘되게 됩니다.

학교생활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데는 몇시까지 등교하여야 한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질서를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 절도있는 생활을 하여야 학과학습도 잘하게 되고 학교사업이 다 잘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을 절도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어떤 일이든지 두리뭉실하게 질질 끌며 뒤로 미루는 버릇을 없애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시간에 공부절반, 놀음절반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방과후에 놀음에만 팔려 공부나 등교준비를 아침시간으로 미루어놓았다가 집을 나서는 때까지 볶아대는것은 다 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일을 미루는 나쁜 버릇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놀 때는 놀다가도 해야 할 일은 제때에 시작을 떼고 성근하게 하여 말끔히 끌내버리는 버릇을 키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생활을 절도있게 하려면 또한 일과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일과생활은 날마다 하기로 정해져있는 일들을 차례로 해나가는 생활입니다.

일과생활을 잘하자면 일과를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에서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일과표에 밝혀진대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성현이는 방학기간 일과생활을 절도있게 하기 위하여 남다르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어떤 날에는 재미나는 텔레비죤순서때문에 일과가 뒤틀리는것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일과표대로 생활하는 날이 절반도 될것 같지 않았

습니다.

성현이는 이것을 소년단생활총화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일과표대로 생활하리라 굳게 결의다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과표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놀이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해야 할 공부와 책읽기 같은 중요한 일과부터 꼭꼭 지켜나갔습니다.

집일돕기와 좋은 일하기는 미리 생각해두었다가 제꺽 해치우군 했습니다.

방학을 마치며 일기장을 펼쳐보는 성현이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일기장에는 뜻깊게 보낸 방학의 나날들, 일과생활을 절도있게 하여 실력을 높이고 아는것이 많아진 자신이 잘 비껴져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언제 어디서나 생활을 절도있게 해나가는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 제12과. 친척부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친척들사이에 부름말을 바로 쓰는것은 중요한 례의도덕입니다.

친척이란 아버지켠과 어머니켠으로 볼 때 피줄로 보아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는 친척을 부르는 말이 예로부터 정해져있습니다.

친척들사이의 관계에 맞게 부름말을 바로 쓰는것은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하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순란이네 집에 작은외삼촌이 오신 날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순란이는 오래간만에 집에 오신 작은외삼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순란이는 젊은 남자손님에게 하던것처럼 《아저씨,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아니, 외삼촌보고 아저씨라니. 중학생이 그게 뭐냐?》

순란이의 어머니는 부름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순란이를 나무람하시였습니다.

순란이는 외삼촌에게 부름말을 제대로 쓰지 못한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순란이는 작은외삼촌의 손을 잡고 밝게 웃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작은외삼촌, 다시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을래요.》

작은외삼촌은 웃으시며 순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허허, 내가 와서 순란이를 단단히 깨우치는구나. 우리 순란이가 몰라보게 컸는걸!》

순란이는 혈육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 손길이 머리에 와닿는 순간 《작은외삼촌!》 하고 다시 부르며 외삼촌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이처럼 부름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도 하고 밝게도 해줍니다.

친척들사이에 부름말을 바로 쓰자면 촌수관계에 따라 어떻게 부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친척들사이에 피줄이 가깝고 먼 관계를 촌수로 나타냅니다.

부모자식간이나 친형제는 너무 가까운 혈육이기때문에 촌수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은 3촌, 3촌의 자식들은 4촌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4촌형제들은 5촌, 5촌의 자식들은 6촌이 됩니다.

어머니켠으로도 이와 같이 촌수가 갈라지는데 아버지켠과 갈라보도록 외자를 덧붙여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사이를 부자간이라고 하며 아버지와 딸사이는 부녀간, 어머니와 아들사이를 모자간, 어머니와 딸사이를 모녀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사이는 조손간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사이를 형제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녀자형제사이는 자매간, 오누이사이는 남매간이라고 따로 이르기도 합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조카사이를 숙질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가친척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벌 되는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벌되는분을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벌되는분을 한가정의 제일 높은분이라는 뜻에서 고조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부름말 그대로 부르며 높이는 뜻에서 부름말뒤에 님자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들사이에는 웃사람을 형, 형님, 언니라고 하며 녀자가 어른이 된 오빠를 부를 때에는 오라버니, 오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형의 안해를 아주머니, 형수라고 부르며 녀자는 오빠의 안해를 형님 또는 오레미라고 부릅니다.

누이의 남편은 자기보다 우인 경우에 매형, 아래일 때에는 매부라고 하며 언니의 남편은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여러명 있을 때에는 둘째아저씨, 셋째아저씨

라고 하든가 사는 고장의 이름을 붙여 평양아저씨, 원산아저씨라고 부를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 그 안해는 큰어머니,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아버지, 그 안해는 작은어머니라고 합니다.

큰아버지를 큰삼촌, 작은아버지를 작은삼촌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누이를 고모라고 하며 그 남편은 고모부, 어머니의 자매를 이모, 그 남편을 이모부라고 합니다.

고모와 이모의 아들딸들을 고모사촌, 이모사촌이라고 합니다.

고모와 이모의 아들딸들을 부를 때는 촌수를 붙여 4촌형, 4촌동생과 같이 부르거나 친형제처럼 불러도 됩니다.

5촌은 아버지의 형제처럼 부르거나 촌수를 붙여 5촌큰아버지와 같이 부릅니다.

웃벌되는 사람의 나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래일 때는 그냥 3촌, 5촌이라고 부르며 아래벌되는 사람의 나이가 자기보다 우인 때는 조카님이라고 님자를 붙여 부르면 잘 어울리고 례절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촌수관계를 정확히 알고 부름으로써 친척간에 정을 두터이하고 화목을 보장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 제13과. 토끼기르기를 통이 크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담하게 달라붙어 판을 크게 벌려야지 오물쪼물하여서는 일자리를 내지 못합니다.》**

나라의 기둥감으로 자라나는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통이 크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물쪼물하지 말고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는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온 나라의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토끼기르기를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였습니다.

정혁이는 저녁상을 물린 아버지곁에 다가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난 분단총회에서 토끼 50마리를 내 힘으로 길러 인민군대형님들에게 보낼것을 결의했어요. 토끼우리 만드는것을 도와주세요. 예?》

순간 아버지는 엉뚱하면서도 통이 큰 아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시였습니다.

《정혁아, 토끼우리를 어떻게 만들려니?》

《아버지, 집울타리안쪽에 붙여서 여러칸 크게 만들면 어때요?》

《네가 신통한 궁리를 했구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통이 크게 생각해야 한다. 인민군대형님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으면 주춤거리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

아버지는 정혁이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였습니다.

이날부터 정혁이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엄지토끼, 중토끼, 새끼토끼를 기를수 있는 우리를 집울타리를 따라 빙둘러 번듯하게 만들고 그옆에 먹이창고도 붙여지었습니다.

다음날 작은 상자에 넣고 키우던 하얀 토끼, 검은토끼들을 새 우리에 이사시켰습니다.

정혁이는 아침저녁 맛나는 먹이를 토끼들에게 듬뿍듬뿍 주었습니다. 나날이 배가 불룩해지는 엄지토끼들에게는 영양가높은 먹이풀을 뜯어다주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재빛어미토끼가 6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재빛토끼야, 정말 고마와!…》

엄지토끼를 쓸어주며 새끼토끼들을 바라보는 정혁이의 얼굴엔 기쁨이 한가득 넘쳤습니다.

잠시후 정혁이는 토끼우리를 돌며 먹이를 주다가 하얀 엄지토끼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준 먹이를 하나도 먹지 않았던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에 토끼를 들여다보니 코병에 걸려있는것이였습니다.

며칠후면 새끼를 낳게 될 하얀 토끼가 앓고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시간을 늦추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때 우물쭈물하다가는 토끼를 죽일수 있다. 어떻게 하나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정혁이는 축산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혁이는 축산반 수의사누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토끼에게 약도 먹이고 마늘즙을 상처에 발라주면서 정성다해 치료하였습니다. 먹지 못한다고 콩비지까지 만들어 먹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후에 하얀 엄지토끼는 새끼를 8마리나 낳았습니다.

토끼기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혁이는 어려울 때마다 토끼를 많이 기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힘을 내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끼기르는 방법도 부지런히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애쓴 보람으로 정혁이는 50마리의 토끼를 길러내여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군대형님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정혁이의 모범을 따라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토끼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정혁이네 학교 학생들은 토끼기르기를 통이 크게 잘하는 학생들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해마다 토끼를 많이 길러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보내주고있는 정혁이와 그의 동무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아름찬 일을 해놓으면 그에 대한 보람도 그만큼 크기 마련이다.》**

**《무슨 일에서나 자신의 힘으로 해낸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면 지혜도 나오고 용기도 생기게 된다.》**

## 제14과. 우리 평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수도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평양은 심장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높뛰고있기때문에 온몸에 피가 돌면서 살아있게 됩니다. 심장이 멎는다는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것은 심장입니다.

우리 인민은 평양이 있기때문에 민족의 넋을 가지고 조선의 정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평양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인민의 심장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양과 더불어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평양에서 우리 인민들을 승리에로 령도하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평양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대통운이였고 인류의 대경사였을뿐아니라 평양의 새로운 력사의 첫 출발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만경대가 있는 평양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평양에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도록 해주시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공화국의 주석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나깨나 평양을 그리워하며 평양에 오면 먼저 만수대언덕에 오르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며 만경대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은덕을 잊을수 없고 그 고마움이 심장속 깊은데서 솟구치고있기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때에도 평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의 피눈물로 얼룩지고 한숨소리만 높은 곳이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셨기에 평양은 온 세계에 주체로 이름높은 사회주의조국의 수도로,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꽃피우는 요람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은 곧 경애하는 대원수님이십니다.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향도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시여 축복받은 평양은 영원히 조선의 심장으로 높뛰고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의 평양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혁명의 수도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습니다.

평양은 우리 민족의 성지이며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조선사람은 평양을 중심으로 오래오래 살아오면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민족을 이루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국가인 고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평양은 수천년동안 계속 고조선의 수도로 발전하여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구려시기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슬기와 용맹을 떨쳤습니다.

평양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을 살며 투쟁하여온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세계에 우리 평양처럼 민족의 력사를 고스란히 다 담고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하기에 평양은 민족의 정기를 뿜는 원천지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민족의 피를 지닌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살건 평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민족적긍지와 자랑에 넘칩니다.

그리고 평양을 우러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평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혁명의 성지로 빛나고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번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을 천만년길이 전해가도록 평양에 대기념비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시였습니다.

평양의 만수대언덕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습니다.

풍치아름다운 대동강반에는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아 활활 타오르는 홰불로 여기가 바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수도 평양이라는것을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문과 조선혁명박물관, 당창건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3대혁명전시관을 비롯하여 곳곳에 일떠선 대기념비들이 혁명의 성지인 평양의 모습을 더해주고있습니다.

평양은 명승지의 아름다움에 조화를 맞추어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세상에 비길데없이 훌륭한 도시입니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솟아난 영웅도시 평양은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큰 거리들을 불과 한두해사이에 척척 일떠세우며 더욱 몰라보게 변모되고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영광거리와 승리거리, 락원거리, 문수거리, 천리마거리, 창광거리 그리고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를 비롯한 거리거리에 행복에 겨운 인민들의 웃음소리 넘치고있는 평양,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며 더욱 부강할 래일을 향하여 창조로 들끓는 평양, 이것이 오늘의 우리 평양이며 그것은 그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사람들은 평양에 와서 인류가 념원해온 꿈같은 세상,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선을 보았다고 하면서 일심단결되고 부강번영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평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속에 마음껏 배우고 재능을 꽃피우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선의 미래로 자라는 우리들은 평양을 심장으로 받들고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 제15과. 량해구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인것만큼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생활하는 과정에 실수를 하거나 간혹 실례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례절에 어긋나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도 더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모르고 실수했을 때 량해의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량해란 잘못된 일이나 미안을 끼치는 일에 대하여 사정을 헤아려 그럴수 있으리라고 리해하는것을 말합니다.

저도모르게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량해를 구해야 합니다.

응당 인사를 차려야 할 대상인데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인사를 못했을 때에는《미처 알아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량해해주십시오.》라고 하며 남의 일에 지장을 주었거나 방해를 주었을 때에는《이거 정말 안됐습니다.》, 《방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등으로 하면 됩니다.

저도모르게 다른 사람의 몸을 밀쳤거나 발등을 밟는것도 실례로 됩니다. 이때에는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사죄해야 합니다.

실례하고도 아무런 사죄없이 시치미를 떼는것은 례절이 없는 학생의 행동입니다.

말을 잘못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에도 실례로 됩니다.

만약 저로서는 좋게 말하느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을 나쁘게 가지면《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내 말이 지나치지 않았는지요. 량해하세요.》 등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실수한 일은 자신이 인정하고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동무의 필갑을 떨어뜨린 경우에《리혁동무, 정말 미안해. 내 불찰로 그렇게 되였으니 널리 량해해줘.》라고 하며 필갑을 주어주고 부러진 연필을 깎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탓이라고 보고 시치미를 떼거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는것은 량심도 없고 례절도 지킬줄 모르는 불손한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실례되는 일을 해야 할 때에도 미리 량해를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이야기하는데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경우에 《말씀중인데 안됐습니다. 좀 지나가도 일없겠습니까?》라고 량해를 구하는것이 례절있는 표현입니다.

뻐스를 먼저 타야 하는 경우에도 《좀 실례합시다. 기차시간이 박두해서 그럽니다.》라고 겸손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나서 량해를 얻어야 합니다. 량해도 구하지 않고 뒤늦게 와서 뻐스줄의 앞에 서는것은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됩니다.

다음으로 량해를 구하여 상대방이 양보해준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영옥이는 추운 겨울 어느날 학급동무들이 집단체조훈련하는 장소에 더운 국을 가지고 가려고 뻐스정류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 뻐스를 타자면 국이 다 식을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옥이는 사람들앞에 조심스럽게 나서면서 《미안하지만 좀 먼저 탈수 없을가요? 동무들에게 국을 끓여가는데 식을가봐 그럽니다. 좀 량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사람들은 어서 그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영옥이는《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뻐스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페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수했을 때에는 량해의 례절을 바로 지켜 고상하고 건전한 풍모를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 제16과. 푸른 숲과 함께 영원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꿀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영웅 리창도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라를 사랑할줄 아는 남다른데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영호, 정철이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창도는 고향의 산들을 모두 보물산으로 만들 자기의 꿈을 터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이 피여날 그날을 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면 우리 고향의 산들이 모두 먹을것이 나오라면 먹을것이 나오고 입을것이 나오라면 입을것이 나오는 요술주머니가 될거야!…》

그들은 산기슭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호동무의 생일기념으로 여기에다 잣나무를 심지 않겠니?》

창도의 말을 듣고 둘러보니 잣나무를 심기에는 정말 맞춤해보였습니다.

《나무모가 있어야지?》

정철이가 창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창도는 무슨 요술사처럼 팔을 휘저으며 《나무모 나오라!》 하고 말하고는 몇걸음 뛰여가는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나무모묶음과 삽 세자루를 덥석 잡아 들어보였습니다.

창도가 준비해놓은것이였습니다.

《동문 정말!》

영호와 정철이는 창도의 깊은 생각에 머리숙여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나이만큼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명일동무도 함께 왔을걸…》

창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철이가 뾰로통해지며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 애는 말도 말아. 오늘도 함께 가자니까 산에 갈바엔 연놀이나 하겠다고 하지 않겠니.》

창도는《연놀이도 할 땐 해야지.》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무엇이 되든지 고향을 꾸리는 일부터 배우라고 하셨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어릴 때부터 나무 한그루라도 가꾸어 나라에 보탬을 줄 생각을 해버릇해야 커서 조국에 이바지하는 큰일도 하게 된다면서…》

창도와 영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던 정철이가 조용히 시한수를 읊었습니다.

사람들이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조국에 온 심장을 바치기 전에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저게 웬 연길가?》

창도가 밤나무골쪽을 가리키면서 하는 놀라움이 어린 말이였습니다.

《농장원아저씨들이 부식토를 모으면서 모닥불을 피우겠지 뭐.》

영호의 대수롭지 않은 대답에 창도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수가 없어. 산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여있지 않니?》

《정말!》

《산불일수 있어. 우리 가보자!》

창도가 이렇게 말하며 앞장서자 영호와 정철이도 그를 따라 연기나는 밤나무골로 달려갔습니다.

《산불이다!》

불길은 벌써 밤나무밑을 지나 산기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급히 소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영호동무는 불이 건너편 산쪽으로 번져가지 못하게 그리고 동무는…》 하고 창도는 정철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동무는 저 안쪽을 막으라!》

그리고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달려드는 불길을 맞받아나갔습니다.

어느덧 불길에 창도의 옷과 머리카락이 반나마 타버렸습니다. 지지는듯 얼굴이 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뜨거운 불길을 피해 옆으로 뛰여나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눈을 뜨니 푸른 하늘에 연기가 흩날렸습니다.

문득 뜨거운 불길과 연기를 피해 옆으로 물러섰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비겁쟁이! 세상에서 가장 너절한 인간은 어머니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빼는 비겁쟁이이다. 동무들이 보았다면 얼마나 비웃을가.)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거침없이 산을 핥으며 기여오르고있었습니다.

(안된다! 그게 어떤 산림이라구!)

창도는 또다시 불길을 맞받아나갔습니다.

불을 꺼버리며 산판을 누벼가던 창도는 불속에 쓰러진 동무들을 업어내오고는 기승을 부리는 불속에 다시 뛰여들었습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이고 단 연기에 정신이 흐려왔지만 물러설수 없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창도를 안아내온것은 그때로부터 얼마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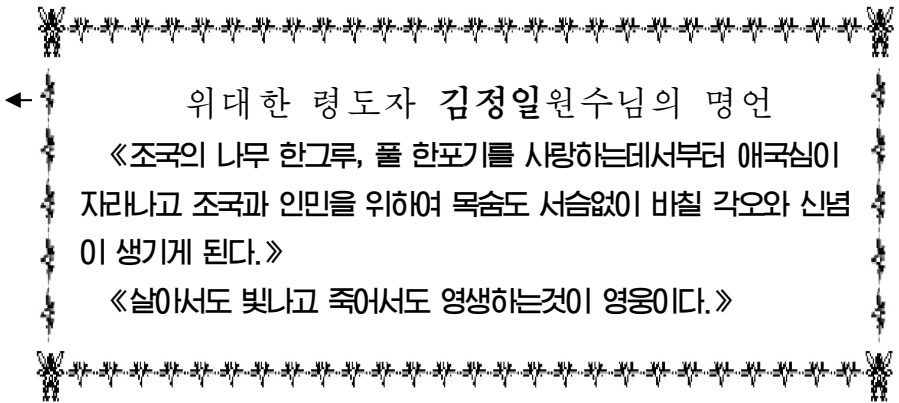
《창도야! 정신을 차려! 창도야!》

자리를 털고 일어난 정철이와 영호랑 동무들이 목놓아울며 창도를 불렀지만 창도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재부를 지켜내고 동무들을 구원한 소년영웅 리창도.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도의 고향마을에는 그가 가꾸고 목숨으로 지켜낸 무성한 산림이 그의 영웅적위훈을 말해주듯 푸르러 설레이고있습니다.

그는 푸른 숲과 더불어 영원히 소년단대오에 서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살아서도 빛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 영웅이다.》**

과외읽기

## 소년영웅 리창도

리창도학생의 고향은 량강도 풍서읍에서도 90리 떨어진 신명리,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황초덕마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분단위원장 리창도학생을 비롯한 11명 소년단원들이 발휘한 집단적인 영웅적소행을 상세히 보고받으시고 불더미를 몸으로 덮어 끈것도 영웅적이고 불길속에 뛰여들어 어린 동무들을 업고나온것도 영웅적이라고 하시면서 산림 몇정보를 구원한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 귀중한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리창도소년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리창도학생이 공부하던 학교를 리창도중학교로 부르도록 해주시였습니다.

## 제17과. 대중관람장소에서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문화도덕생활을 잘하고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대중관람장소는 사람들이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가지고 문화정서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극장, 영화관, 경기장, 문화회관 등 대중관람장소에서 례절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중관람장소에 갈 때 옷차림과 몸단장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관람장소로 갈 때에는 자기자신을 위해서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거슬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운동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머리단장을 잘하지 않은채 어지러운 신발을 그대로 신고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깨끗하고 맵시있게 입어야 합니다.

양말도 깨끗한것으로 갈아신고 신발도 닦아신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관람하기 전까지 제정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관람표를 사야 할 때에는 줄을 서서 차례로 표를 사야 합니다. 관람표를 먼저 사겠다고 줄에 끼여드는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리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관람시간전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정이 있어 시간을 어겼을 때에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람표에 좌석번호가 밝혀졌을 때는 꼭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아

야 하며 좌석번호가 밝혀져있지 않을 때에는 들어온 차례로 질서있게 앉아야 합니다.

친한 동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앉겠다고 질서없이 행동하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을 경우에는《미안하지만 혹시 좌석번호를 잘못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실례합니다. 자리표를 다시 보아주십시오.》라고 례절있게 말하여야 합니다.

좌석번호가 없는 곳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는 먼저 온 손님에게 《이 자리가 비였습니까?》, 《앉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을 때 남의 앞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와 같은 인사말로 앉은 손님에게 량해를 구해야 합니다.

관람이 시작될 때까지는 조용히 앉아 책과 신문을 보거나 복도나 현관의 전시품들을 돌아보며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비종이 울리면 자리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관람할 때의 례절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화나 공연이 시작되면 정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보았다고 해서 앞질러 옆동무와 말을 하거나 무엇을 소리내여 먹지 말아야 하며 자막이 나올 때 방해되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운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큰소리로 웃어 다른 사람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람장소에서 신발을 벗거나 맨발을 의자우에 올려놓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람과정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질 때에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야 합니다.

관람이 끝난 다음에도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상영이 완전히 끝나고 불이 켜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있어야 합니다.

극장에서 공연이 끝나면 모두 일어서서 막이 닫길 때까지 열광적인 박수로 배우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며 꽃다발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기장, 체육관에서는 선수들이 다 나갈 때까지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관람장소에서 나올 때에는 자리에 떨군 물건이 없는가, 자리를 어지럽히지 않았는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나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영화관이나 극장, 경기장을 비롯한 대중관람장소에서 질서와 례절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고상한 도덕품성의 소유자가 되여야 합니다.

## 제18과. 악보를 판 소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무너져 자본주의로 되돌아간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 수도의 어느 한 학교에는 마리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잘 켜기로 이름났습니다.

사회주의시기에 재능을 활짝 꽃피워온 마리나는 국제어린이콩쿨에까지 나가서 뛰여난 재간둥이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리나의 처지는 지난날과 판판 달라졌습니다.

벌써 여러날째 마리나는 학교에서 독촉하는 학비를 내지 못하

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자리를 떼워 굶기가 보통이였고 그러다나니 그 많은 학비를 마련할수가 없었습니다.

마리나와 같이 공부하던 여러명의 어린 학생들이 학비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 담배장사, 승용차청소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리나는 나야 남다른 재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봐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첫 수업시간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절반도 차지 못한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고나서 학비를 가져오지 못한 학생은 일어서라고 하였습니다.

마리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마리나, 네 재간은 아깝다만… 학비를 내지 못했으니 공부할수 없다.》

《예?》

마리나는 선생님을 쳐다볼념을 못하고 교실밖으로 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재간도 쓸데없구나!)

학교정문을 나서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였습니다.

그때부터 마리나는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였습니다.

며칠째 마리나는 집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병이 되여 자리에 누웠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다니였는데 어린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습니다.

마리나는 배고파 우는 동생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 빵 한개라도 쥐여줄가?)

마리나는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더는 지킬수 없었습니다.

한참동안 생각하던 마리나는 《옳지.》 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자기도 재간을 부려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큰 거리로 나간 마리나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의 둘레에 모여왔습니다.

마리나는 국제어린이콩클무대에 가지고 갔던 악보를 번져나갔습니다.

마리나가 뛰여난 솜씨로 재치있게 바이올린을 켜는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둥그래졌습니다.

《보기 드문 나어린 바이올린수군!》

《자, 돈을 줄테니 한곡 더 켜라!》

여기저기서 뿌리고 던지는 돈잎들이 날아와 마리나의 발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도적놈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다가 마리나를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그바람에 귀중한 바이올린이 박산났습니다.

마리나가 우는 사이에 웬놈들이 널려진 돈잎까지 다 집어갔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리나의 눈앞에는 누나를 기다리고있을 뼈만 앙상한 동생의 얼굴이 안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팔것이 없는것이 안타까왔습니다.

문득 땅바닥에 떨어져있는 악보가 눈에 띄였습니다.

(저걸?… 그럴수 없다.… 그게 어떤 악보라고…)

자기의 희망과 영예가 깃들어있는 악보였습니다.

마리나는 보물처럼 여기는 악보를 작은 가슴에 안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악보를 펼치고 마음껏 바이올린을 켜며 행복했던 사회주의시기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좋담? 아, 동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할수 없구나!)

마리나는 서럽게 눈물지으며 몇푼의 돈을 받고 끝내 악보를 팔고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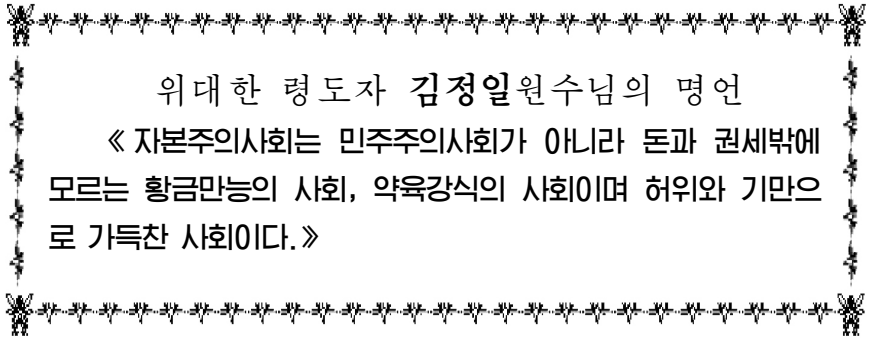
한쪼각의 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마리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정신을 잃을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제것을 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늙은이와 어린이들, 패싸움을 하는 불량배들과 경찰들의 호각소리…

거리는 남을 속이고 남의것을 빼앗는 사람들로 차고넘치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때에는 꿈에서조차 볼수 없었던것들이였습니다.

(빵 한쪼각을 위해 바이올린을 켜고 귀중한 악보를 팔아야만 하는 저주로운 사회, 나의 배움터와 아빠, 엄마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 못살 세상! 행복했던 사회주의를 버리다니?…)

나어린 마리나의 가슴속에서는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린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끓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자본주의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황금만능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사회이다.》**

## 제19과.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학교나 부모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례절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도덕품성을 잘 알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후 어느해 평양제2소학교를 찾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정문에는 나어린 소년단원이 경비를 서고있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알아뵙지 못한채 소년단인사를 올리면서 접수를 하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소년단원을 못내 기특하게 여기시며 접수대장에 자신의 존함과 오신 리유를 밝히시고 학생의 안내를 받아 교장실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은 다른 기관에 찾아왔을 때 질서와 례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고귀한 본보기로 됩니다.

우선 다른 기관에 찾아갔을 때에 접수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장이나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면 반드시 접수실에 들려 찾아온 용무를 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과에서 일하는 고철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례절있게 말하여야 접수원도 친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접수원이 찾아주는 동안에는 대기실이나 정문밖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접수원이 들어가보라고 하면 그냥 쑥 들어갈것이 아니라《고맙습니다.》, 《들어갔다오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보는 사람을 만나는 례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출입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안에서 응답이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런 손기척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문을 빠끔히 열고 머리만 기우뚱하고 《아버지!》 하고 찾는것은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필요에 따라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철수의 둘째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왔다는 것을 간단하게 명백히 말하여야 합니다.

만나는 시간이 지체된 경우에는《일보시는데 지장을 주어 미안합니다.》라고 량해를 구해야 합니다.

만나려는 사람이 웃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분과장선생님, 저의 담임선생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먼저 웃사람에게 례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례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보는 사람을 만나고 접수실을 나설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때에는《만나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못만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범들을 잘 알고 어디에 가서도 소년단원답게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 제20과. 역과 홈에서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도를 사랑하며 려행을 할 때에는 제정된 철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소년단야영을 가거나 이름난 명승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견학할 때, 부모님들과 함께 친척집을 방문할 때에 기차를 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우에 역기다림칸과 홈에서 제정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역기다림칸에서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역기다림칸은 려행하는 손님들이 차표를 사거나 타야 할 기차를 기다리면서 머물러있는 곳입니다.

역기다림칸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을 때에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그 자리가 비여있는지, 앉아도 좋겠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뜻으로도 되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가 잠간 자리를 비웠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옆에 빈자리가 있다 해도 눕거나 짐을 올려놓아서는 안됩니다. 자리가 비였다고 해서 눕는다면 다음에 온 사람이 앉지 못하게 되는것은 물론 례의도덕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남이야 앉든말든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리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학생들은 역기다림칸에서 기다리면서 조용히 책이나 신문을 보는것이 좋습니다.

필요없이 돌아다니거나 큰소리로 떠들면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표파는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사야 합니다.

차표를 먼저 사겠다고 끼여서거나 줄을 서지 않고있다가 앞사람에게 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역기다림칸에서 군인, 영예군인, 애기어머니들과 웃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홈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칸에 있다가 차시간이 되면 표찍는 곳을 거쳐 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안내원에게 차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줄을 서지 않고 끼여서거나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렬차가 들어오거나 떠날 때 철길쪽 홈끌으로부터 2m밖에 비켜서야 합니다.

렬차가 홈에 들어와 완전히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내린 다음 순서대로 올라야 합니다.

이때 먼저 오르겠다고 철길을 건너가거나 렬차밑으로 기여넘어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렬차에 오를수 없는 짐을 가지고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에도 덤비지 말고 질서있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역기다림칸과 홈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질서를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 제21과. 시련을 이긴 우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지를 위해서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동지들사이의 의리와 우정은 깨끗하여야 합니다.》**

우정은 생활을 함께 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지고 깊어지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참다운 우정은 시련의 고비에서 더 아름답게 꽃펴나 그 깨끗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소년근위대에는 우정이 남다른 창일이와 정남이라는 두 대원이 있었습니다.

놈들이 지키고있는 다리를 폭파할 습격조를 뭇는 모임때였습니다.

습격조원들을 발표하자 정남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일동무는 이번 습격전투에 나갈수 없습니다. 창일동무는 발목을 곱질렀는데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정남이는 습격조에 창일이를 넣었다가는 일이 그르칠수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창일이만은 빼놓기로 하였습니다.

(정남이, 넌 진짜친구가 아니였구나! 믿고 한 말까지 다 밸아놓다니…)

창일이는 정남이가 우정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남이는 창일이가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우정이 조직을 속이는 눈먼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보았던것입니다.

습격조가 떠날 때 정남이가 말했습니다.

《창일동무, 발목치료를 잘해. 다음번엔 꼭 함께 나가자.》

그 말도 창일이에게는 고까운 생각만 더해주었습니다. 습격전투에 나가 통쾌하게 원쑤놈들을 골탕먹이지 못하고 앉아 소식이나 기다릴 생각을 하니 견딜수 없었습니다.

《에익! 네가 그런다구 앉아있을줄 알아?》

창일이는 끝내 승인을 받고 습격조를 따랐습니다.

습격조가 철다리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한창 행동계획을 의논하는데 불쑥 창일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사연을 듣고난 동무들은 창일이의 발목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일이는 일없다고 하면서 습격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창일이는 유인조에 속했습니다.

폭파조가 행동을 시작하여 다리밑에 다가드는 때였습니다.

불의에 전지불을 번뜩거리며 적순찰병놈들이 나타나 다리밑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정남이네는 서둘러 잡고있던 큼직한 돌멩이를 강물에 힘껏 던졌습니다.

아닐세라 놈들은 전지불을 그쪽으로 돌려댔고 다리옆에 있던 탐조등이 강가를 핥듯이 비쳐나갔습니다.

총소리, 놈들이 고아대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유인조는 이런 때 두명씩 갈라져 집결장소까지 빠져나가기로 되여있었습니다.

정남이는 창일이와 한패가 되였습니다.

《창일동무, 엎드렷! 발목을 조심해. 이쪽으로!》

그들은 탐조등불빛을 피해 엎드렸다가는 달리고 달리다가는 엎드렸습니다.

놈들의 눈먼 총알이 귀뿌리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퍼그나 멀리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창일이가 돌부리에 걸려 엎어지면서 발목을 되꺾이고 왼쪽무릎뼈를 되게 다쳤습니다.

얼결에 일어서 발자욱을 옮겨딛던 창일이는 꼬꾸라져 일어설 엄두를 못내며 말했습니다.

《정남동무, 난 이젠… 지체말고 먼저 빠지렴.…》

《그거 말이라구 하니? 어서 업혀!》

창일이는 정남이의 등을 밀치며 업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난 조장이야. 동무는 제 생각대로만 하겠다는거냐? 어서!》

정남이의 꾸짖는듯 한 말속에는 동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있었습니다.

창일이는 업혀가면서도 정남이의 걸음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날 내려놓구…》

《또 그 소리냐? 동무라면 그러겠니! 단단히 그러안기나 해!》

정남이는 창일이의 다친 다리를 돌부리에 스칠가봐 키돋움을 하며 달렸습니다.

그러는 정남이를 헤아려보는 창일이의 가슴은 뭉클해났습니다.

창일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정남이가 힘들세라 그의 걸음에 맞추어 몸조절을 하였습니다.

놈들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등뒤에서 울렸습니다.

이러다간 다 잡힐 판이였습니다.

정남이는 풀숲과 큰 돌들이 뒤섞인 곳에 얼른 창일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던 방향을 엇질러 내달리더니 저만큼 가서《개놈들아!》 하고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놈들은 정남이쪽으로 전지불을 비쳐대며 달려들었습니다.

한편 풀들을 움켜잡고 가까스로 일어선 창일이는 《이놈들아! 소년근위대가 여기 있다.》 하고 웨치며 놈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검붉은 섬광이 번뜩하며 《꽝!》 하는 요란한 폭발소리가 울리고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폭파조가 자기 임무를 수행해낸것이였습니다.

《그렇지, 만세!》

《만세! 잘한다 잘해!》

갑자기 사위는 쥐죽은듯 조용해졌습니다.

놈들은 밤낮으로 지켜오던 다리가 날아나자 넋을 잃고 뿔뿔이 달아났던것입니다.

《정남동무!》

《창일동무!》

둘은 부둥켜안고 볼을 비비며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잠간 숨돌리며 창일이의 다친 다리를 더듬어보던 정남이가 말했습니다.

《생각나니? 지난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나를 업고 가던것 말이야.

동무는 그때 솔고개를 단숨에 넘었지…》

창일이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다가 정남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남동무, 우정은 사선도 넘는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난 이제야 알았어. 우린 우정으로 시련을 이겼구나!》

## 제22과. 조직의 품에 다시 안긴 길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직생활을 싫어하며 조직을 떠나서 자유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단련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때였습니다.

길호네가 사는 거리에 미국놈들이 이리떼마냥 달려들었습니다.

어느날 여느때없이 거리가 소란스럽기에 사람들틈에 끼여 거리로 나갔던 길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새끼빨갱이들을 똑바로 보라!

빨갱이는 큰놈이건 애새끼건 용서가 없다.》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고아대고있었습니다.

다가가보니 열댓명의 아이들이 팔목을 묶이운채 끌려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길호가 잘 아는 동무들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 뻐젓이 걸어가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눈길로 그들을 보면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에 떨고있었습니다.

길호는 동무들을 보는 순간 놀랍기도 했지만 부끄러워 머리를 들고 다시 바라볼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토방에 털썩 주저앉은 길호는 생각에 잠겨버렸습니다.

미국놈들이 기여든 다음날이였습니다.

분단위원장인 동철이가 찾아와 귀속말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샘골모래터에 오라. 마을소년단원들은 다 모인다.》

그러나 늘 소년단조직을 소홀히 대하면서 조직규률을 잘 지키지 않던 길호는 미국놈들이 밀려들어 공부도 못하는 때에 소년단모임이 다 뭐냐고 생각하면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소년단조직은 샘골에서 소년근위대를 무었습니다.

동무들은 그날부터 마을에 삐라를 붙이여 인민들을 고무하였고

적들의 움직임을 살펴 유격대에 알리고 다리를 폭파하는 등 미국놈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길호는 소년근위대의 투쟁소식을 알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요즘 조직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동무들과 함께 투쟁의 길을 걸으려고 벼르던참이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모두 잡혀갔으니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복잡하기만 하였습니다.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뜨락으로 들어서시는것이였습니다.

《길호야, 너의 동무들은 모두 소년근위대원들이구나. 그런데 악귀같은 놈들에게 잡혔으니… 에구!》

길호는 그러시는 할머니가 제 동무들은 싸우다가 원쑤놈들에게 잡혀갔는데 너는 집구석에 박혀있으니 그게 어디 됐느냐고 꾸짖으시는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망설이고있을 때가 아니야!)

길호는 자리를 차고일어나 학교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원쑤놈들이 틀고앉은 학교가까이에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서서 잡혀들어간 길호의 동무들을 걱정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로 잡혀간 동무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자기는 두고두고 동무들과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배신자로 되고말것이였습니다.

마침내 길호는 원쑤놈들에게 잡혀간 동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기를 소년근위대에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목숨 바쳐서라도 동무들을 구원할 결심을 썼습니다.

그것을 동철이 어머니가 가지고 들어가는 밥속에 넣어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길호는 집에 돌아오면서도 방에 들어서서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무들을 구원할수 있을가?)

그의 머리에는 교실 천정에 나있는 지붕으로 통하는 구멍도 떠오르고 밤중에 보초놈을 제껴버릴수 없을가 하는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나 총도 없이 게다가 혼자서는 해낼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털고 앉아있을수 없었습니다. 그가 인민유격대를 찾아가리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가 동철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서시였습니다.

동철이 어머니는 길호에게 동무들이 보낸 편지를 전해주시였습니다.

《조직은 길호동무를 믿고있었다. 조직에서는 동무를 소년근위대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찬성할수 없다. 그보다 먼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인민유격대에 모셔갈것을 분공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셔둔 곳을 아는 사람은 다 잡히고 길호동무밖에 없다. 항상준비!》

길호의 두볼로는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는 조직의 한성원이라는 그 말이 그렇듯 소중하고 긍지로운 줄 이제야 새로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길호는 눈물을 닦으며 조직이 준 분공을 수행하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길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길호는 소년단넥타이들에 정중히 감싸서 모셔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찾았습니다.

그립고그리운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

어둠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밝게 안겨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셔안은 길호는 인민유격대를 찾아 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셔온 소년근위대원인 길호를 유격대아저씨들은 얼싸안았습니다.

대장아저씨는 미제승냥이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고 하면서 소년근위대동무들을 구출하는 작전에 길호를 꼭 참가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길호의 머리에는 조직과 동무들을 떠났던 그 며칠간에 받은 남모르는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직과 집단을 떠나면 죽은 몸이나 같다!)

길호의 두눈에는 조직의 품에 다시 안긴 행복과 기쁨의 맑은 이슬이 반짝이였습니다.

# 제23과.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례의도덕을 잘 지키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리용하는 리발소, 목욕탕, 식당이나 상점 등은 다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꾸려진 봉사시설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리용하는 장소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 리발소에서 지켜야 할 례절

리발소에 갈 때에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여야 합니다.

리발을 하려면 웃옷을 벗어야 하므로 깨끗한 속옷을 입고 머리를 깨끗이 빨고 가야 합니다.

리발소의 기다림칸에서는 책을 보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며 리발하는 곳에 드나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만일 영예군인이나 선생님들이 오시면 자리를 내주어야 하며 급한 사정이 있는 동무들에게 차례를 양보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리발할 때에는 필요없는 말을 하지 말며 특히 도중에 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여 리발을 해주고있을 때 조는 현상은 례절이 없는 행동입니다.

리발소의 비품들은 여러 사람들이 쓰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품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깨끗이 다루고 아껴써야 합니다.

리발을 하고 머리를 빤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쓸수 있도록 세면대를 깨끗이 닦아놓아야 하며 빗을 쓴 경우에도 깨끗이 씻어놓아야 합니다.

리발을 하고 돌아갈 때에는 리발사에게 《머리를 잘 깎아주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례절

목욕하러 갈 때에도 옷차림과 몸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목욕탕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옷차림이나 몸단장을 되는대로 하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옷벗는 방에서 먼지를 털거나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욕탕을 리용하는 학생들은 물을 깨끗이 써야 합니다.

물을 퍼낼 때에는 꼭 깨끗한 바가지를 써야 하며 욕조안에 들어가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광원과 같이 욕조에 들어가게 되여있을 때에는 손과 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하며 물속에서 때를 밀거나 머리를 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욕조안에 들어가서는 물이 뜨겁거나 차다고 하여 제마음대로 더운물이나 찬물을 틀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한증탕에서 큰소리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동무를 찾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한증칸안에서는 절대로 때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목욕을 다하고 나올 때에는 관리원에게 목욕을 잘하고 간다는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 식당에서 지켜야 할 례절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눕니다.

학생들은 명절날이나 일요일에 부모나 친척들과 함께 식당에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에는 밖에서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털고 들어가야 합니다. 식당안에 들어가서는 자리를 골라가며 왔다갔다 하거나 의자를 이쪽저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를 잡으면 식사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려야 합니다.

식당에서는 우선 접대원들에 대한 부름말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접대원들을 찾는 경우에는 《접대원누나》, 《접대원언니》라고 하여야 합니다.

접대원들과 말할 때에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사가 나오는 시간이 좀 길다고 해서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평을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급한 손님에게 좀 먼저 주었다고 해서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평을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우기 부모나 친척, 웃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 학생이 나서서 독촉을 하거나 불평을 부리는것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어른들앞에서 례절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여 음식이 나오면 웃사람에게 먼저 권해야 합니다. 이때 음식그릇을 그저 넘겨놓을것이 아니라 《먼저 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권해야 합니다.

웃사람들이 사양할 때에는《인차 나오겠는데 어서 드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시 권하는것이 례절있는것으로 됩니다.

어떤 사정으로 먼저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먼저 먹겠습니다.》라고 함께 앉아있는분들에게 량해의 말을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 씹는 소리를 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긁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끝내고 일어설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식사를 먼저 끝냈을 경우에 옆사람의 식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용히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될수록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나와야 할 경우에는《먼저 일어섭니다.… 천천히 드십시오.》라고 량해를 구해야 합니다.

## 상점에서 지켜야 할 례절

학생들이 아동백화점이나 학용품상점에 갈 때에는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가야 하며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매대에서 사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가고 물어보거나 보여달라고 할 때에는 례절있게 말해야 합니다.

《제도기가 있습니까?》,《저 수첩은 값이 얼마입니까?》,《만년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존경의 뜻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는《만년필 하나 주십시오.》, 《학습장 세권만 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판매원을 찾을 경우에도《판매원언니》,《판매원누나》,《판매원어머니》라고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매대를 떠날 때에는《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할 때의 규범들을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례절바른 학생이 되여야 합니다.

# 제24과. 소개인사하기와 받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사귈 때에는 자기 소개인사로부터 교제가 시작됩니다.

자기 소개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소개를 요청하는데 잘 응하지 못하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친절한 교제를 할수 없습니다.

소개인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례절형식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자기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소개해줄것을 요청하거나 소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황에 맞게 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바로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라는것을 알리는 인사입니다.

다른 기관에 찾아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앞에서는 반드시 자기 소개부터 하여야 합니다.

교원실에 찾아갔을 때에는 인사를 한 다음 《1학년 2반 고은숙입니다. 수학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찾아온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심부름으로 다른 집에 갔을 때에는《저는 청류동에 사는 김영철의 맏아들입니다. 김남혁이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것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어머니, 우리 학급 철이동무예요. 저와 한책상에 앉아요. 철이동무, 우리 어머님이야. 식료공장에서 일하신단다.》라고 웃사람인 어머니에게 동무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동무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것이 례절있는 소개인사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았거나 소개해줄것을 요청할 때에도 례의범절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소개를 받았을 때에는 알게 되여 반갑다는 말과 자기는 어디서 온 누구라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웃사람의 소개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인사가 늦었습니다. 리설경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지 못한 실례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동무나 부모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에는 《순화동무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고보니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례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개해줄것을 요청할 때에는 자기부터 소개한 다음 문의해야 합니다.

《난 옥류중학교 철민이야. 동무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니?》라고 친절하고 례절있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소개할 때와 소개받을 때에 지켜야 할 례의규범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 제25과. 언제나 솔직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하여야 합니다.》**

어느날 오후였습니다.

분단에서는 생활총화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자기 생활을 총화하였습니다.

혁민이도 교탁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제 잘못을 저지르고도 소년단조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언제나 모범인 혁민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가?)

혁민이는 어제 있은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축구훈련을 마친 혁민이는 집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꼭 이겨야겠는데.)

혁민이는 이제 두밤만 자면 있게 될 3분단동무들과의 경기를 그려보며 천천히 마을어구에 들어섰습니다.

갈림길에 이르자 혁민이는 들고가던 뽈을 발끝으로 슬슬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활짝 열려진 어느 집 대문이 마치 꼴문처럼 생각되여 뽈을 힘껏 찼습니다.

씽 날아들어간 뽈은 아름답게 꾸려놓은 꽃밭 한가운데 떨어지면서 꽃가지들을 꺾어놓았습니다.

(아차, 이걸 어쩌나?!)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혁민이는 저도모르게 후— 숨이 나갔습니다.

(됐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혁민이는 넘어진 꽃나무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젠 됐다.)

집에 왔지만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얼마전에 학습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교시가 되새겨졌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는데 난 그러지 못했어. 이제라도 주인을 찾아가 솔직히 잘못을 말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주인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뽈을 차다가 꽃들을 꺾어놓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혁민이의 이야기를 듣고난 그 집 어머니는《정말 너는 솔직한 애로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혁민이는 꽃들을 다시 심고 잘 정돈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혁민이는 자기 생활을 총화해보고 결함을 생활수첩에 적어넣었던것입니다.

교실안에 혁민이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마을길에서 뽈을 찬것도 잘못이지만 누구도 모른다고 해서 잘못을 숨기려고 한것은 더 나쁜 행동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분단동무들은 참말 혁민이는 자기의 잘못을 숨길줄 모르는 솔직한 소년단원이라고 마음속으로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솔직하고 정직한 학생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 제26과. 축하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하고 동지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생활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즐거운 명절날도 있고 동무들과 이웃들사이에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주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축하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축하는 사람들사이의 정을 깊이하고 학습과 생활을 고무추동하는 작용을 합니다.

명절날에 축하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4월과 2월의 명절이 오면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초상화앞에 정성담아 피운 꽃을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면서 맹세를 다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편지도 올립니다.

명절날 이웃들이나 동무들을 만나면 《명절을 축하합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등 살뜰한 인사말을 나누며 웃사람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또한 명절에 따라서 《4.25명절을 축하합니다.》, 《당창건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등으로 축하의 인사를 나눕니다.

설명절에는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써오는 인사법으로 례의를 표시합니다.

설인사를 드릴 때에는 몸단장을 잘하고 웃어른앞에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할아버지, 설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든가, 《할머니,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등의 인사말을 합니다.

새해에 동무들사이에는 《새해를 축하한다.》, 《새해에 공부를 더 잘하여 최우등생이 되자구.》라고 약속이 담긴 말로 인사를 나눌수 있습니다.

웃어른이나 동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것은 중요한 례절입니다.

웃사람의 생일날에는 《할아버지, 생신날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앓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인사말을 합니다.

동무들사이에는 《철호야,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다정히 인사말을 하면서 기념품을 준비했다가 주거나 꽃송이를 안겨주는 방법으로 축하해줄수 있습니다.

생일날 축하인사를 받으면 정다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마음의 결심도 생기고 사업과 생활을 더 잘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마운 말 한마디에서도 진정을 느낄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때문입니다.

영예를 지닌 사람들을 축하해줄 때도 경우에 맞게 례절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이때에는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 영예를 빛내여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여럿이 개별적으로 축하해줄 때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순철이가 글짓기경연에서 1등을 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앞을 다투어 달려간 학급동무들은 그에게 한마디씩 축하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달려간 경수가 말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순철동무, 축하한다. 난 네가 꼭 1등을 하리라고 믿었댔어. 이건 전적으로 너의 성과야! 네가 얼마나 노력했니. 너에 비하면 우린 정말 부끄러워. 넌 정말 우리 학급의 자랑이야.…》

동무들은 그만 멋적어졌고 순철이는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무슨 말이 저렇게 길어? 자기가 학급을 대표하는것 같구나.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못하구 저게 뭐야.…)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경수는 동무들이 하나, 둘 물러서는것을 보고서야 자기의 말이 너무 길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경수는 축하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축하례절에서는 꽃다발이나 꽃보라 같은것을 리용해서 축하분위기를 돋구면서 례의를 표시할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축하례절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잘 알고 웃사람이나 동무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도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다.》**

# 제27과. 성과 말까지 빼앗으려고 한 날강도 일제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략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인간쓰레기들을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수룩한데서 칼이나 몽둥이, 총 같은것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죽이고 남의 재물을 빼앗는 놈들을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중에서도 아무데서나 뻐젓이 강도질하는 놈들을 날강도라고 합니다.

일제놈들은 조선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조선사람의 성과 말까지 영영 빼앗으려고 한 날강도였습니다.

영식이의 할아버지 준호로인이 소학교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느날 일본놈교원이 교실에 들어와 선심이나 쓰듯 지껄였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천황폐하>의 은덕으로 일본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놈은 이제부터 성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준호를 불러세웠습니다.

《너의 성은 <오하라>다. 알겠는가?》

《…》

놈은 곱지 않게 준호를 쏘아보며 다그쳐물었습니다.

《대답해 봐. 너의 성은 뭐지?》

《태가입니다.》

그놈의 낯짝은 대번에 짐승처럼 이그러졌습니다.

《이리 나와!》

준호는 그놈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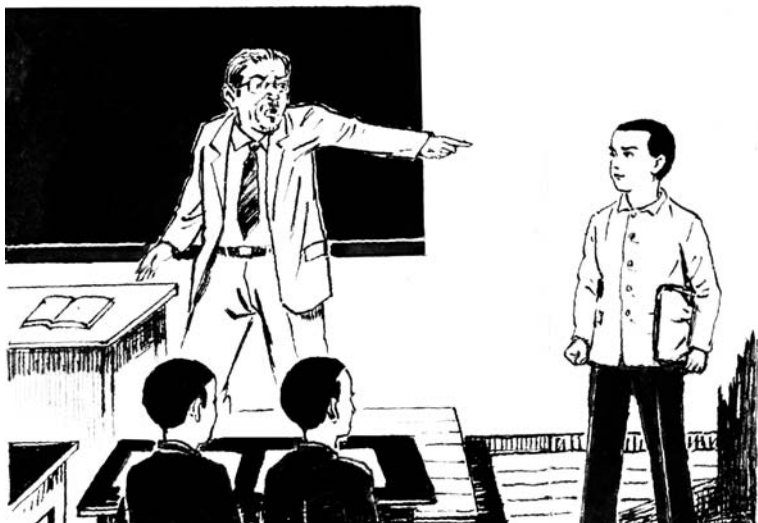
《너의 성은 <오하라>다. 알겠는가?》

《아닙니다. 저는 태가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조선사람의 성도 없다.》

그놈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없어질수 없습니다.》

그날 준호는 매맞아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성은 《태》가라고 하였습니다.

놈들은 준호에게 《불온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그를 학교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준호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보자 준호의 아버지가 오히려 고무해주었습니다.

《잘했다.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빼앗기면서 공부해서는 뭘 하겠느냐.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것만도 원통한데 성까지 빼앗기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놈들의 노예가 되고만다.》

그후 준호의 아버지는 동네사람들에게 절대로 성을 고치면 안된다고 선동했다는 《죄》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일때문에 몸져누우신 어머니에게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약을 사드리려고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어느날 나무짐을 지고 읍거리에 나섰던 준호는 뜻밖의 봉변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저, 어디 가면 나무를 팔수 있나요?》

준호가 마주오는 늙은이에게 묻고있을 때였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던 일본놈이《뭐야? 조선놈의 새끼!》하며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왜 때려요?》

《또 조선말이나 해? 누가 조선말이나 하라고 했소까? 이 자식 가자!》

그놈은 준호를 마구 밀치며 주재소로 끌고갔습니다.

《벌금이나 내놔!》

《무슨 벌금을 내요?》

《조선말이나 했으니 벌금이나 내란 말이다.》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한것이 《죄》로 되다니, 나라를 빼앗고 사람의 성을 빼앗더니 이젠 말까지 앗아내려드니 이런 악착하고 고약한 날강도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준호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없으면 나무라도 내놔!》

그리하여 준호는 조선말을 했다는 리유로 매를 맞아야 했고 어머니약값을 마련하려던 나무마저 빼앗겨야 했습니다.

일제놈들에게 짓밟힌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철창없는 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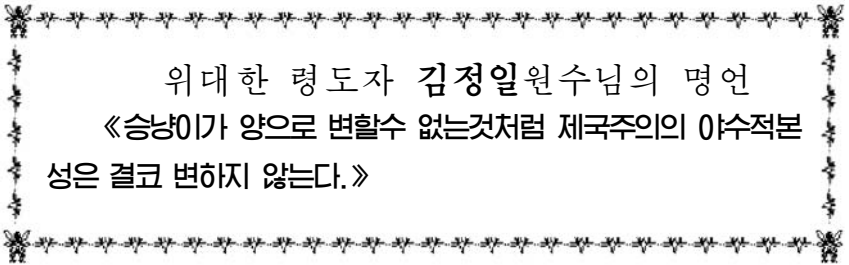
이였고 총칼에 맞아 쓰러지는 인민들의 피가 바다를 이룬 곳이 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제놈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기에 조선이 있고 조선민족도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날강도 일제놈들이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영원히 잊지 말고 값을 톡톡히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놈들이 다시금 날강도의 본새로 덤벼든다면 우리는 천백배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동해바다 깊은 물에 영영 처박아넣고야말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 과외읽기

## 일제의 강도적본성

해방전 어느 소학교에서 있은 일입니다.

한 일본놈교원은 학생들이 조선말을 했다고 하여 두들겨패고 피흘리며 쓰러지자 머리에 물통을 뒤집어씌워 정신이 들도록 한 다음 운동장에 밤새도록 꿇어앉히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말을 한번 하면 5전, 두번 하면 10전씩 벌금을 받고 세번이상 하면 퇴학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본놈들은 우리 학생들에게서 조선말을 깡그리 빼앗으려고 한 날강도입니다.

# 제28과. 아래사람을 대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귀중한 동지로서 존경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웃사람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사람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아래사람들을 례절있게 대하는것은 웃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학생동무들에게 있어서 아래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 친동생들이나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다니는 동생들을 말합니다.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주어야 앞으로 커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품성을 소유할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진심으로 되는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사람을 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언어례절을 잘 지키는것입니다.

아래사람들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부를 대신 《야!》, 《꼬맹이》 등 반말과 야비한 별명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동생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릇된 행동입니다.

아래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집단전체를 대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실례로 《유치원어린이들, 차길에서 놀면 안돼요.》라는 식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아래사람들의 물음에 건성건성 대답하거나 명령조로 말하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공부하는데 동생이 방해한다고 하여 짜증을 내거나 물어보는 말에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하면서 성근하게 대답하지 않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킬 때에는 잘 타일러 동생들이 자각적으로 진심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만 하라고 명령조로 말할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식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동생과 함께 방청소를 하려고 할 때 《야, 방 닦으라.》라고 말할것이 아니라 《옥이야,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우리 함께 방을 깨끗이 거두어놓자.》라고 말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사람을 대하는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어린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차근차근 깨우쳐주고 옳게 이끌어주는것입니다.

어린 동생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에는 적극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갓 중학생이 된 상준이는 어느날 아침 학교로 가다가 마을어구 다리목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가 울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알아보니 다리를 건너가면서 장난을 하다가 그만 신발 한짝을 개울에 떨어뜨리였다는것이였습니다.

상준이는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서 끝내 어린이의 신발을 건져다주었고 또 그를 유치원에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철없는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때리거나 욱박지르지 말고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릇된 일을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아무런 이야기도 할줄 모른다면 어떻게 중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동생들은 언니나 형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놀고싶어합니다.

일부 동무들은 어린 동생들을 홀시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린 동생들이 웃학년학생들과 함께 어울릴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지만 될수록이면 함께 데리고 놀아야 합니다.

학용품과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동생들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동생들앞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아래사람을 례절있게 대하자면 어린 동생들에게 옳은 행동,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무들의 말과 행동은 어린 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일과생활에서나 학습과 좋은일하기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동생들이 좋은 모범을 본받고 말없는 교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웃사람을 존경할뿐아니라 동생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례절바르게 대하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 2. 사회주의법

## 제1과. 법과 우리 생활

법과 우리 생활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행복한 우리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법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들의 행복한 오늘도 없고 휘황찬란한 래일도 바랄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느 나라의 법과도 대비할수 없이 우월한 법이 있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라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있으며 소학교와 중학교때에는 마음껏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교육법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앓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인민보건법이, 사건사고를 내지 않도록 인민보안단속법이, 길가에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통안전규정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법이란 무엇이기에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습니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것이 아닙니다. 의무성이 없는 법은 법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공민들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입니다.

행동준칙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어떠어떠하게 하라고 가르쳐준 행동의 자막대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자막대기가 있기때문에 사회가 질서정연한것입니다. 사람마다 제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될것이고 사람들은 불안속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가운데서 어떤것은 지키지 않을 때 주위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것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준칙들가운데서 사람들의 량심에 의하여 지켜지는 행동준칙을 도덕이라고 하며 검찰,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과 같은 국가권력기관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행동준칙을 법이라고 합니다. 도덕은 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창피를 느끼지만 법은 잘 지키지 않으면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 않거나 한동네의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네 집 둘째는 도덕이 없다.》고 비난을 받아 자신은 물론 부모들에게까지 창피를 주지만 건늠길표식이 없는 곳으로 길을 건너갔을 때에는 교통안전규정에 따라 단속되여 벌금을 무는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책상에 칼자리를 내거나 창문의 유리를 깨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회주의재산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적용합니다. 동무들사이에 싸우거나 패싸움을 할 때에는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승인없이 전열기를 쓸 때에는 전력법에 따라, 승인없이 나무를 찍었을 때에는 산림법과 산림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것이 엄중할 때에는 행정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더 엄중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로동교화형, 사형과 같은 형벌을 적용합니다.

결국 법이란 국가가 만들어내고 공민들의 자각성과 국가의 강제적힘에 의하여 지켜지는 행동준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법은 도덕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과 도덕은 그것들이 서로 언제 생겨났는가 하는데서 구별됩니다. 도덕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량심과 자각에 기초하여 생겨났지만 법은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생겨나면서 사회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생겨났습니다.

법은 그것이 집행되는데서도 도덕과 구별됩니다. 도덕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지켜지지만 법은 환경과 조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례를 들어 우리는 웃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야 하지만 줄을 서서 노래를 부르며 갈 때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줄을 서서 간다고 하여 건늠길표식이 없는 곳으로 길을 건너가면 교통안전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은 소년단조직의 규약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년단규약은 소년단원들만 지키면 되며 규약을 어기였을 때에는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법은 우리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행동준칙입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보고 국가권력기관이 처벌합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제2과. 교통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교통질서를 지키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사건사고도 미리막을수 있게 법이 제정되여 실시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법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지키는것은 공민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국가는 교통안전규정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자각적으로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교통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뿐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고는 혁명의 원쑤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주기때문에 그 해독성과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인명피해를 입는다는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선 길을 걸어다니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길을 다닐 때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다니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길 오른쪽이란 도로의 오른쪽과 걸음길의 오른쪽을 말합니다. 걸음길이 따로 없는 길에서는 도로의 오른쪽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걸음길이 따로 없다고 하여 가운데로 다니거나 왼쪽으로 망탕 다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습관되여야 교통사고를 미리막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습관되면 캄캄한 밤이나 지하건

늠길, 복도, 계단에 전등이 꺼졌을 때에도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습니다.

걸음길이 따로 있는 거리에서는 반드시 도로의 오른쪽 걸음길로 다녀야 합니다. 특히 평양의 옥류교나 대동교와 같이 걸음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 걸음길로 다녀야 합니다. 학교와 아빠트의 복도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습관되여야 합니다. 대렬을 지어갈 때에도 오른쪽 걸음길의 오른쪽으로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왼쪽 걸음길의 가까운 곳에 갈 때에는 왼쪽 걸음길로 갈수 있으나 먼거리에 가려고 할 때에는 오른쪽 걸음길로 가야 합니다. 도로의 왼쪽 걸음길로 가는 경우에도 걸음길의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에 가로 줄을 지어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가로 줄을 서서 간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사고까지 일으킬수 있습니다. 다리 같은데서 가로 줄을 서서 가다가 뜨락또르를 만나면 피할 곳이 없어 교통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것이 좋습니다.

길가운데 모여서있거나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여 오고가던대로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길가운데 서서 뒤에서 오는 동무를 기다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동무를 만나면 길가녁에 나와서 말을 하여야 하며 동무를 기다릴 때에도 길가운데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길가녁에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앞서려면 앞사람의 왼쪽으로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승용차나 자동차, 뜨락또르가 앞차보다 앞서려 할 때에도 앞차의 왼쪽으로 빨리 앞서야 합니다.

길을 걸어다니면서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밟지 말며 침을 뱉거나 휴지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길을 건너가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도시길과 고속도로에서는 지하건늠길이나 구름다리, 건늠길표식이 있는 곳으로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하건늠길과 구름다리, 건늠길표식이 먼곳에 있다고 하여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가면 높은 속도로 달리는 차들에 의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건늠길시설과 표식이 없는 도시길에서는 사귐길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하며 농촌길에서는 오고가는 차가 없을 때에 곧바로 건너가야 합니다. 오고가는 차를 살필 때에는 왼쪽 길을 먼저 살핀 다음 오른쪽 길을 살펴야 합니다. 길에 차가 서있을 때에는 차뒤로 건너가야 합니다.

교통지휘신호가 있는 사귐길에서는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철길건늠길을 건너갈 때에는 기차가 오지 않는가를 확인한 다음 건너가야 하며 건늠길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멈춤대가 올라간 다음 철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길을 건너갈 때에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갑자기 정황이 조성될 때에는 갈듯말듯 하지 말고 가만히 서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사가 정황을 잘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는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를 절대로 타지 말며 등록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는 타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다님길이 있는 도로에서는 정해진 길의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다녀야 하며 걸음길로 다닐 때에도 걸음길의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다녀야 합니다.

자전거길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 오른쪽 가녁으로부터 1m안에서 타고다녀야 하며 차길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지휘신호를 하는 사귐길에서 곧추 또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지하건늠길 또는 구름다리밑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교통신호를 하지 않는 사귐길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게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금지된 구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아야 하며 걸어다니는데 지장을 줄수 있는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가야 합니다.

제동장치와 종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밤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로 조명과 빛반사판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뒤에 학생이나 어른을 태우지 말며 학령전 어린이를 1명이상 태우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에 실을 짐은 손잡이너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세바퀴자전거일 때에는 뒤바퀴사이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궤도전차와 뻐스, 자동차를 타고다닐 때의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류소에서 궤도전차나 뻐스를 기다릴 때에는 궤도전차와 뻐스가 멎을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궤도전차와 뻐스가 오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줄을 서야 합니다. 걸음길을 가로막거나 궤도전차와 뻐스가 오는것을 본다고 하면서 궤도전차와 뻐스가 오는 반대방향으로 줄을 서지 말며 차길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궤도전차와 뻐스, 자동차에 매달리거나 달릴 때에 뛰여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궤도전차와 뻐스를 탈 때에는 궤도전차와 뻐스에서 사람들이 다 내리고 앞사람이 오른 다음에 타고 뻐스표를 인차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애기어머니와 영예군인, 웃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궤도전차와 뻐스에 타서는 떠들지 말고 책을 보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사색하여야 합니다. 폭발물, 불붙기 쉬운 휘발유, 디젤유, 석유, 라크, 신나와 역한 냄새가 나는 물건, 집짐승을 가지고 궤도전차와 뻐스에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차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밀거나 창밖에 물건과 휴지를 내던지지 말며 침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궤도전차나 뻐스, 자동차를 세우려고 차길에 나서거나 차길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하며 돌 같은것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적재함에 탔을 때에는 서있거나 눕지 말며 적재함의 뒤판이나 옆판에 걸터앉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규정위반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걸어다니는 질서, 건늠길질서, 궤도전차와 뻐스타는 질서를 어겼을 때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자전거타는 질서를 어겼을 때에는 벌금을 물리며 위반행위가 엄중할 때에는 자전거를 회수합니다.

우리는 교통안전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제3과. 환경보호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공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인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병없이 오래 살기를 념원하여왔습니다. 병없이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념원을 실현하는데서 환경보호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병없이 오래 살려면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사업이란 위생학적요구와 생활문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고 그것을 잘 가꾸고 깨끗이 보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자연환경속에서 살고있으며 자연환경은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데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환경을 떠나서 사람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환경보호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애국사업입니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환경보호법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공민들이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여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한다는것은 도시와 마을, 도로, 철길주변, 호수가, 강변의 나무를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손상파괴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유지한다는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조성한다는것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잘 꾸리고 도로, 철길, 건물과 강주변, 공공장소와 도시안에 쓸모있는 나무와 잔디를 많이 심어 잘 가꾼다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또한 공해현상을 막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공해현상이란 공기와 물을 어지럽히고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기와 물은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천의 하나입니다. 먹을것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합니다.

공해현상을 없애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것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자살행위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나쁜 습성입니다. 담배에는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더우기 나쁜것은 담배연기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20대)을 피우는 사람과 한방에 있으면 6대의 담배를 피우는것과 같은 건강상피해를 입게 됩니다.

담배는 단정한 옷차림에도 흠이 가게 하고 인격도 떨어뜨리며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담배의 해독성을 잘 알고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말며 사회와 가정에서 담배를 끊도록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공중위생법에는 공공장소를 리용하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 곳에서 피워야 한다고 되여있습니다. 담배를 지정된 곳이 아닌데서 피우는 사람, 길을 가면서 피우는 사람과의 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해현상을 없애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공기를 어지럽히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15㎥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기속에 가스, 연기, 먼지가 많이 섞이면 사람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공기를 어지럽히는 현상은 공장들과 자동차, 뜨락또르에서 나오는 가스, 연기와 나무잎을 비롯한 오물을 태우는데서 많이 생깁니다.

환경보호법에는 가스, 먼지잡이장치를 하지 않은 공장은 돌리지 못하게 되여있고 자동차운수법, 도시경영법, 환경보호법에는 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자동차와 뜨락또르는 쓰지 못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도시경영법에는 모든 기관과 학교들에 규정대로 오물장을 만들고 오물을 정해진대로 수집운반하며 오물을 태우지 말데 대하여 정하고있습니다.

공해현상을 없애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물을 오염시키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물은 공기와 함께 사람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떠나서 사람과 지구상의 생물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환경보호법, 수산법, 항만법, 인민보건법, 물자원법, 형법에는 모든 공장들에서 물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며 강에 오물을 버리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데 대하여 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영법, 식료품위생법에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먹는물을 다른데 쓰지 말며 우물은 반드시 뚜껑을 만들어씌워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데 대하여 정하고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인민보안기관, 위생방역기관이 합니다.

공장, 기업소와 공민이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거나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환경보호질서를 어기는 공장과 기업소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며 자동차운전사, 뜨락또르운전수에게는 벌금을 물립니다.

강과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보냈거나 유독가스를 내보내여 사람의 건강과 수산자원, 농업생산에 피해를 준 공장,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공민에게는 로동교양처벌을 주며 그것이 엄중한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법의 요구를 지키는데서도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합니다.

# 제4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보호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본래의 모습을 생동하게 볼수 있게 보존하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입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철저히 보위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유지보호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인민들이 철저히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모두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들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뵈옵고 자기의 생활정형과 결의를 다지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교양마당을 비롯한 주변을 알뜰히 거두는 사업에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동상을 철저히 보위하는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깨끗이 거두는데 자각적으로 참가해

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보호구역에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정상적으로 가꾸며 그 주변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유지보호하는데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들어갈 때에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성냥, 라이타를 비롯한 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사적물과 혁명유적유물에 손을 대지 말며 보호구역에서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하며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말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유지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혁명전적지관리기관과 혁명사적지관리기관, 산림보호기관,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성냥과 라이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회수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안의 혁명사적물, 혁명유적유물, 혁명사적기념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원상복구시킵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유지보호질서를 어겼을 때에는 법적처벌을 적용합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룡문대굴을 보여주면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인식을 더 깊이 줄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룡문대굴 같은 세계적인 명승지들과 천연기념물들이 많습니다. 명승지들과 천연기념물들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재부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굴, 울림폭포, 룡악산을 비롯한 여러 명승지, 천연기념물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인민들이 명승지들에서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잘 꾸려주시였습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며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을 인민들에게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여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입니다.

명승지에는 산, 바다가, 호수, 폭포, 계곡이 속합니다.

천연기념물에는 동식물, 화석, 동굴, 자연바위, 광천 같은것이 속합니다.

국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공민들이 자각적으로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고 누구나 다 리용하는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휴식이나 오락회, 유희를 할 때에는 아무데서나 불을 피우지 말며 오물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땅을 일구고 나무를 찍거나 사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에 이름이나 날자를 새기는것과 같은 락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면 제때에 학교나 관리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눈과 비에 파괴된 곳, 죽은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 나무찍은

자리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알려야 하며 나무를 찍는 현상을 보았을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학교나 관리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알리면서 불을 끄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명승지, 천연보호기념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보상시키며 의식적으로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줍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땅을 일구거나 나무를 찍으며 사냥을 하였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문화유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력사유적과 유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현상과는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문화유물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물자료입니다.

문화유물에는 력사유적과 력사유물이 속합니다.

력사유적은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와 같이 사람이 움직일수 없는것을 말합니다.

력사유물은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등 사람이 움직일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게 하고 나라의 존엄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유물보호법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공민들이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인류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 많이 알려지고있습니다.

문화유물을 보면 제때에 학교나 문화유물보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유물들은 기록에 남겨져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더우기 오랜 옛날의 력사는 유적유물에 의해서만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화유물이라고 생각되면 두드려보거나 뚜껑을 열어보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제때에 학교나 문화유물보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화유물에 칼자리를 내거나 보호구역에서 문화유물을 손상, 파손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땅을 일구거나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를 찍거나 꺾지 말며 표식주, 설명문판, 울타리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유물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문화유물보호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문화유물을 파괴손상시키면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문화유물을 몰래 땅에서 파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로동교양처벌 또는 로동교화형의 형벌을 적용합니다.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을 손상, 파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시킵니다.

우리는《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유지보호에 관한 규정》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제5과. 사회주의재산보호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며 공화국법의 중요한 보호대상입니다.》**

사회주의재산은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로동을 통하여 마련된 나라와 인민의 공동재산이며 귀중한 재부입니다. 이 귀중한 재산을 잘 보호하고 리용하여야 우리는 더 잘살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재산에는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이 있습니다.

국가재산에는 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과 같은 자연부원과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큰 공장, 항만, 은행 등이 속합니다. 국가재산은 전체 인민의 소유입니다.

사회협동단체재산에는 토지, 농기계, 배, 작은 공장이 속합니다.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이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소유입니다.

국가는 사회주의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모든 공민들이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나라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그 누구도 훔치거나 파괴하며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재산관리법》에는 사회주의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나라와 인민, 후대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재산을 아끼고 철저히 보호할데 대한 법적요구를 지키는 과정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는 과정이며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정으로 됩니다.

우선 모든 사회주의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실사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재산등록이란 새로 생긴 재산들을 문건에 올리는것을 말합니다. 사회주의재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재산관리를 잘할수 있고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은 재산이 얼마의 값에 해당한것인가를 정확히 적어넣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재산은 정상적으로 실사하여야 합니다. 실사는 매 월, 매 분기마다 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바뀔 때에도 해야 합니다. 재산실사과정에 이미 있던것이 없어졌으면 찾아야 하며 새로 생긴것이 있으면 재산등록문건에 올려야 합니다. 실사는 등록문건과 실물을 대조확인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재산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함께 제도와 질서가 째인 속에서 더욱 우러나오게 됩니다.

재산관리책임자를 책임성이 높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산관리책임자는 재산을 창고나 제정된 장소에 규모있게 보관하여 어느때든지 쓸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정돈하여야 합니다. 재산관리책임자는 재산을 내주는 질서와 받는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자리를 뜰 때에는 반드시 창고에 열쇠를 채우고 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관리책임자는 재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생기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재산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건물과 살림집의 구조와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시켜서는 안됩니다. 건물과 살림집에 마음대로 구멍을 뚫거나 방을 늘구고 줄이는 등 구조를 변경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실을 창고로, 창고를 실험실로, 식당을 상점으로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회주의재산을 알뜰히 거두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실, 책상과 의자, 살림집, 기계, 공구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때에 수리하여 항상 새것과 같이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회칠과 기름칠도 자주 하고 대청소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삽이나 호미를 비롯한 공구 같은것을 쓰고는 물에 깨끗이 씻는 습관을 붙이며 자기가 사는 집과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거두어야 합니다.

학교와 병원, 영화관,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뻐스, 기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을 애호하며 제정된 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재산을 훔치거나 손상,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 파괴하는 행위, 공장의 설비와 자재를 훔치는 행위, 농업생산물을 훔치는 행위, 승인없이 나무를 찍는 행위, 전기를 승인없이 몰래 쓰는 행위, 물고기를 마구 잡는 행위 등 사회주의재산을 훔치거나 손상, 파괴시키는 행위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장애를 주는 위법행위입니다.

사회주의재산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위원회, 검찰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서 합니다.

사회주의재산에 손해를 준 사람들가운데서 로동교화형의 형벌을 줄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공장, 기업소, 학교의 재정검열위원회, 검사위원회, 간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벌금을 물립니다.

사회주의재산을 훔친자, 빼앗은자, 속여가진자, 의식적으로 손상, 파괴시킨자는 로동교양처벌을 주며 엄중한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의 형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재산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국가적요구를 잘 알고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1학년용)**

**3판**

| | | | |
|---|---|---|---|
| **집 필** | 교수 박사 김완선,<br>부교수 고혜숙, 최명순 | **심 사** | 심의위원회 |
| | | **그 림** | 공훈예술가 김의관 |
| **편 집** | 최동녀 | **교 정** | |
| **장 정** | 류명심 | **콤퓨터편성** | 김학연 |
| **낸 곳** | 교육도서출판사 | **인쇄소** | |
| | | **2판발행** | 주체98(2009)년 11월 9일 |
| **3판인쇄** | 주체99(2010)년 월 일 | **3판발행** | 주체99(2010)년 월 일 |

교- 값 원